발간등록번호
51-6113815-000007-10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아카이브 톺아보기 vol.4



직업 기록, 그 속에 우리 삶 있네
이·미용 기록으로 서울을 읽다
서울기록원이 직업을 기록하는 법

시민과 가까워지는 소장기록 열람서비스
소장기록의 복원 기준은?
상처 입은 종이기록물 복원 '리프캐스터'

'서울기록원이 만난 기록가'_ 미술품보존연구소 김겸 대표
오픈소스로 만들어보는 아카이브
먼지 앉은 우리 추억도 복구할 수 있어요, '생활수선' 체험기

서울기록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 02-350-5600 | archives.seoul.go.kr

행정 821-0048
ISSN 2636-0764 04

기록이 된 삶, 삶이 되는 기록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서울의 기록과 시민의 기억이 만나는 서울기록원

서울기록원은 서울기록(시정기록과 시민기록)을
수집하고 그 안에 담긴 노력과 경험을
기록유산으로 관리하여, 시민과 함께 기록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건립된 서울의 기록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서울기록원은 서울의 기록과 시민의 기억이 만나는
세계적인 수준의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기록의 이관·수집, 기록물 보존·복원, 기록관리 교육,
전시 및 강연,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eoul Metropolitan Archives (SMA) :
Home to the history of Seoul and its citizens

SMA preserves historical records and information abou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s well as personal history of its citizens. Our mission is to foster civic life by preserving and providing public access to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city and its citizens. We strive to ensure that the records are properly maintained following professional archival and record management practices. We provide home to a wide range of documents about Seoul and its citizens. We work to transfer and collect records, preserve and restore archives, provide education regarding archival management and research, arrange and host a range of events such as exhibitions, lectures, seminars and workshops, among others.

아카이브 서울 vol.4

기록이 된 삶, 삶이 되는 기록

CONTENTS

「아카이브 서울」은 서울시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서울기록원'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로, 담아두기보다는 스치는 일이 더 많은 우리 일상과 사회에서 기억, 그리고 기록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콘텐츠입니다.



02 여는 글
04 INFOGRAPHIC
데이터로 정리한 서울아카이브

FEATURE
직업 기록, 그 속에 웃고 울며 성장한 우리 삶 있네

08 문서의 재발견
단발령의 아픔 지나 시대의
트렌드로 안착,
이·미용 기록으로 서울을 읽다

16 외연과 내연
서울기록원이 직업을 기록하는 법

18 직업 디지털아카이브
밥벌이의 고단함부터 자아 성취까지,
'희로애락' 직업의 세계 속으로

22 INTERVIEW
마케터이자 작가인 이승희 씨
저는 마케터이고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26 IN-SIDE_ 기록열람서비스
지금하세요, 기록유산을
'열람할 결심'

30 장비도감_ 리프캐스터
불타고 찢어지고 썩고…
상처 입은 종이기록의 부활을 돕다

34 THE SPOT_
서울시 주요기록물 복원사업
아픈 기록물이
다시 건강해지는 시간

36 INFO_
주요 시정 인물기록 조사·연구사업
역대 서울시장 기록으로
서울의 변화 읽어볼까

38 서울기록원이 만난 기록가_
복원가 김겸 대표
시간을 복원하는 과학자,
작품을 치료하는 의사

44 THE SPOT_
'오픈소스로 아카이브 만들기' 체험기
개인 기록관도,
공유 아카이브도 OK
기록으로 디지털아카이브 만들기

48 기록생활백서_ '생활수선' 체험기
먼지 앉은 우리 추억도
복구할 수 있어요

52 기록생활백서_
백팩 아키비스트 프로젝트
아키비스트를 위한 백팩이
있다고요?

56 기록생활백서_ 카탈로그와 친해지기②
기록도 쇼핑처럼 카탈로그에서
골라보세요

60 COLUMN_ 세스헤트의 창
옛 기록물은 역사와 문화를
증언한다

64 REVIEW_《기록학의 지평》
기록학의 여정에서
'이정표'로 기록될!

66 이토록 작고 소중한 아카이브
아카이브, 양과 패턴의 미학

68 아카이브뉴스

여는 글



서울기록원,
시민과 서울의 기록을 잇는 징검다리입니다

2022년 서울기록원의 네 번째 브랜드 북 〈아카이브 서울 vol. 4– 기록이 된 삶, 삶이 되는 기록〉을 소개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는 서울기록원은 브랜드 북 〈아카이브 서울〉에 서울기록원의 여러 가지 소식과 이야기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풀어보았습니다.

올해 〈아카이브 서울〉은 '서울의 직업'을 특별 기획 주제로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서울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통해 서울의 직업을 기록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또한, 직업 관련 기록을 서비스하는 국내 아카이브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아카이브가 어떻게 직업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원하는 서울의 기록을 언제든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기록열람서비스, 서울기록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이기록물 복원 작업, 그리고 시민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한 글들을 실었습니다. 〈아카이브 서울〉이 여러분과 서울기록원을 가깝게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2019년 문을 연 서울기록원은 올해로 개원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서울기록원이 서울을 대표하는 지방아카이브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여정을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시민 곁을 지키는 다정한 아카이브가 되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데이터로 보는 **서울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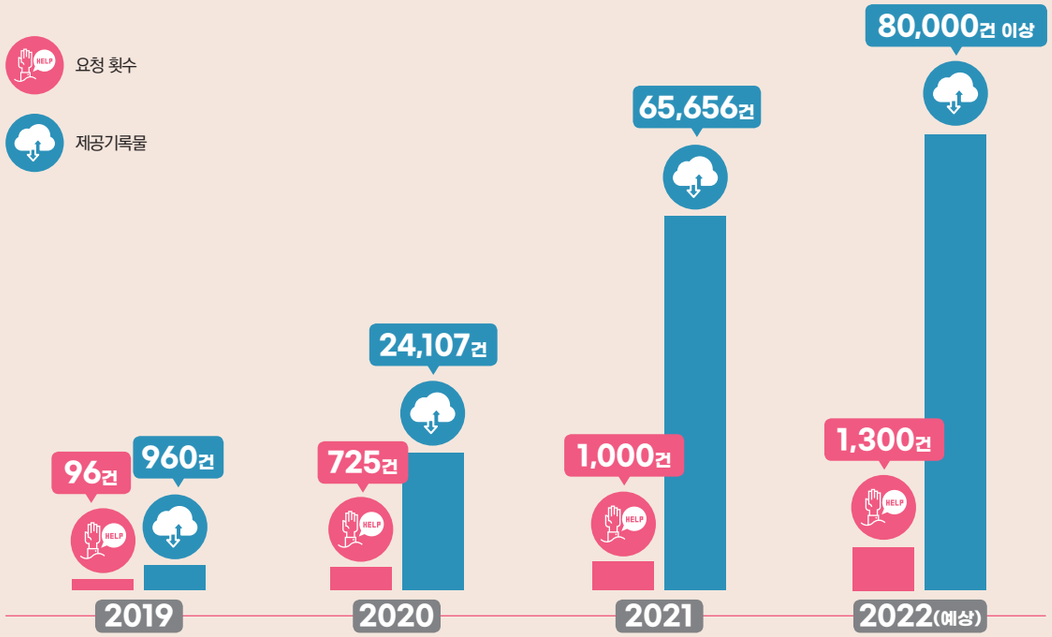
2022년 서울기록원 시정기록 수집(이관) 현황

(단위 : 건)

*시정기록(공공기록) 인수 현황으로 위탁기록 및 시민기록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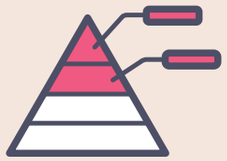
	일반기록물(도면 포함)	(M/F)필름/카드	시청각	행정박물	합계
2019년	190,768	17,822	28,498	1,086	238,174
2020년	36,259	6,263	6,455	239	49,216
2021년	54,796		488	231	55,515
2022년	10,298				10,298
총 계	292,121	24,085	35,441	1,556	353,203

기록열람서비스 현황



2021년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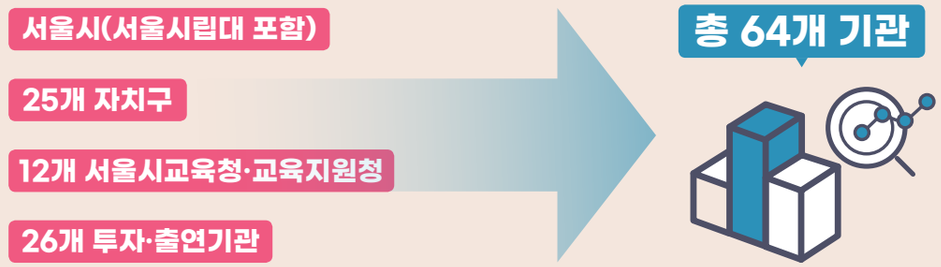
디지털아카이브
중요기록물 목록
130만 건



원문 콘텐츠
15만 건(예상)



기록물 생산·보유 및 관리 관할 기관



FEATURE 직업과 기록 이야기

직업 기록, 그 속에 웃고 울며 성장한 우리 삶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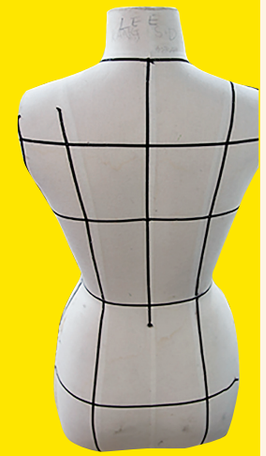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 헌법 제15조는 이렇게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 직업의 자유를 규정하고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기준 '한국직업사전'에는 1만5,715개의 직업이 올라 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는 걸까. 그에 비례해 직업 관련 기록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직업인들이 남긴 것이 있을 테고, 관련 분야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이나 경험 같은 기록도, 정책 변화가 담긴 기록도 있을 것이다.
서울기록원에도 의사, 간호사, 택시 기사 등 직업 관련 소장기록이 적지 않다. 특히 머리를 손질하는 이발사와 미용사의 자격시험과 관련한 기록이 눈에 띄는데, 이발과 미용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 한층 흥미롭다. 이발소와 미용실 기록의 세계로 들어가 본다.











단발령의 아픔 지나 시대의 트렌드가 되기까지, 이·미용 기록으로 서울을 읽다

K-팝이나 드라마, 영화 등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K-컬처K-Culture 중에는 K-뷰티K-Beauty도 빠르게 인지도를 높이는 중이다. 화장품은 물론 헤어·메이크업에 이르기까지 이·미용 산업은 차별화된 품질과 서비스로 경쟁력을 키우며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기록원에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이·미용사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다수의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이번 〈아카이브 서울〉이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본 주제는 우리나라 이·미용사 직업으로, 관련 기록물을 통해 자격시험의 시행 배경과 함께 198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시험 진행 형식을 알아보자.

단발령으로 촉진된 이발업

어릴 때는 머리를 길러 땋아 늘어뜨리다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틀어 올리고 쪽을 지는 머리 문화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우리나라에 서양식 이·미용 문화는 머리와 면도를 다루는 이용업으로 출발했다. 1885년 서울 명동 부근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이발소가 처음으로 들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895년 단발령을 계기로 1901년 조선인 최초의 이발소인 '동흥이발소'가 문을 열고 1907년 궁중에 이발소가 설치되는 등 점차 이용업에 종사하는 조선인이 증가했다.

1915년에는 조선인이 운영하는 이발소 수가 일본인 이발소의 2배에 달하였으며, 중국인의 이발소도 저렴한 요금을 내세워 그 수가 꾸준히 늘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11년 〈이발영업취체규칙〉을 제정하고, 1919년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 업무에 '이발'을 추가하여 이용업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불완전한 이발 기계로 고통을 주거나
소독을 하지 않아 손님 머리를 대머리로 만드는 무서운 폐단"

그러나 비위생적이고, 거칠고 불완전한 이발 기계를 사용해 손님에게 고통을 주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의 머리를 대머리로 만드는 '무서운 폐단' 등이 이어지면서 1923년 7월 자격시험제를 추가해 개정한 〈이발영업취체규칙〉을 반포하였다.

같은 해 10월 3일 '제1회 이발사 시험'이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치러졌고, 합격자에 한해 이용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다. 응시자격은 '2년 이상 이발업에 종사 또는 견습한 경성부 거주자'여야 했다. 제2회 시험부터는 여성도 지원해 합격증서를 받는 등 성별의 제한을 없앴다. 시험 횟수는 첫 시험 이후 2년간은 한 해 3회, 이후부터는 거의 연 1회의 시험이 치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1962년 10월에 시행된 제15회 이발사 자격시험, 서울특별시 공보실, 1962.10.10.

2
1963년 11월에 시행된 제17회 미용사 자격시험, 서울특별시 공보실, 1963.11.13.
이 시험은 콜레라가 확산되면서 원래 시험 일정보다 한 달 뒤 실시됐다.

1


2


미용실의 시작은 1920년 경성미용원

한편, 머리와 얼굴을 가꾸는 미용업의 시작은 1920년 서울 종로구 운니동 87번지에 자리했던 '경성미용원'으로, 당시 신여성들의 단발머리 유행을 이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1926년 충무로 여자미용원을 졸업하고 일본 영화계에서 잠시 활동했던 오엽주가 1933년 종로 화신백화점 내 '화신미장부'를 개업하여 국내에 처음으로 전기로 머리를 지져 멋을 낸다 하여 '전발'로 불린 퍼머넌트를 소개해 대유행시켰다(당시 퍼머넌트를 한 번 하는 데 쌀 두 가마니 가격이었다고 한다).

1935년 화신백화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오엽주는 약 2개월 동안 일본 유학을 다녀와 종로 영보빌딩으로 자리를 옮겨 '엽주미용실'을 연다. 1959년 동화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 내 '오엽주미용연구원'을 운영하며 후진을 양성하기도 한 오엽주는 머리 손질뿐 아니라 피부관리, 메이크업을 아우르는 등 현대식 미용업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1930년대 중반부터는 '파마머리', 즉 퍼머넌트가 유행하면서 미용실이 급증했다. 그리고 1946년 11월 18일 '제1회 미용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속출하는 엉터리 미용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조선 여성미 건설'을 목적으로 보건후생부에서 주관한 시험으로, 오엽주 등 미용계 권위자 5인의 심사를 통해 11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1948년 8월 서울시에서 미용사 시험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이발취체규칙〉을 반포하였고, 같은 해 '제1회 이발·미용사 자격시험'이 서울시청에서 치러졌다. 먼저 9월 21일부터 25일, 총 5일간 미용사 시험이 진행되었다. 수험자는 서로의 머리를 '파마'하는 실지시험에 통과해야 다음 단계인 학과, 구술, 신체검사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응시자격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미용학교 졸업자에 한'하였다. 다만 영업 중인 기면허소지자의 경우 재시험 없이 면허증을 주었다. 뒤이어 10월 6일에 치러진 이발사 시험은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실지시험이 실시되었고, 시험관은 수십 년 이발 경험이 있는 어르신 경력자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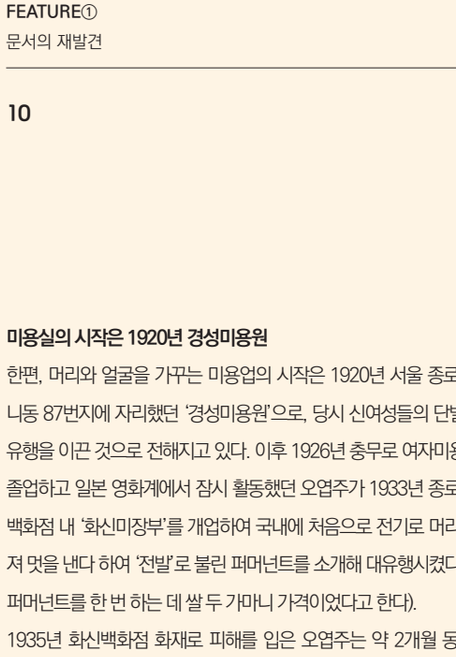
자격시험,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2년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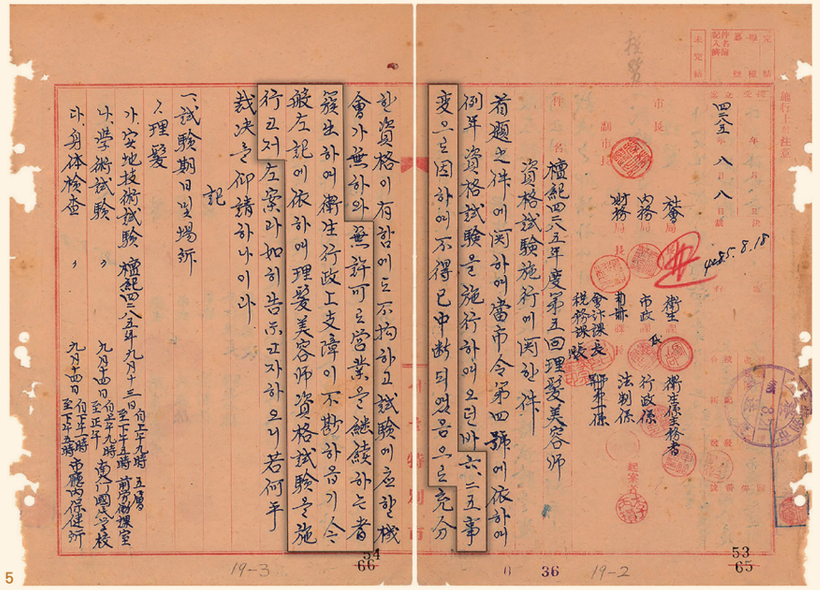
1949년에는 제2회, 10월에 제3회 시험이 치러졌으며 미용사의 경우 '만18세 이상의 여자로서, 2년 이상 실지견습하였거나 미용학원 졸업자에 한'하는 나이·성별 제한이 추가되었다. 1950년 5월에는 제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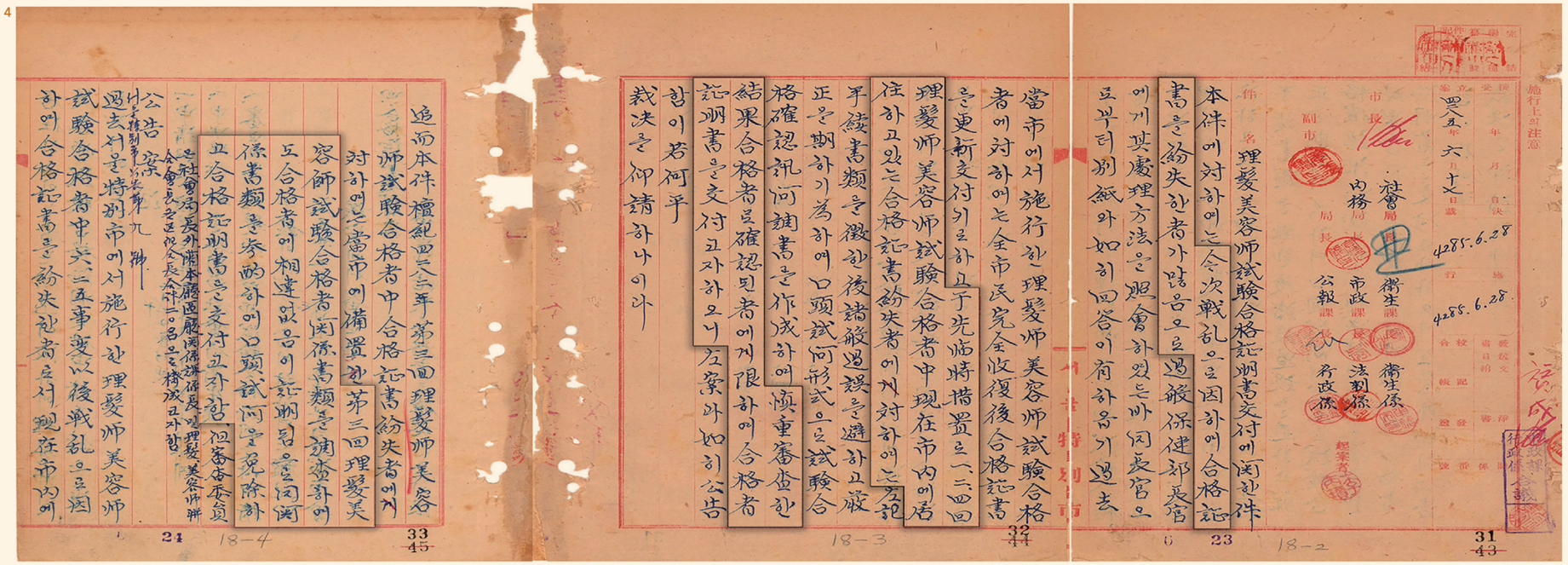
3
1920년부터 신여성들의 단발머리 유행을 이끈 경성미용원 신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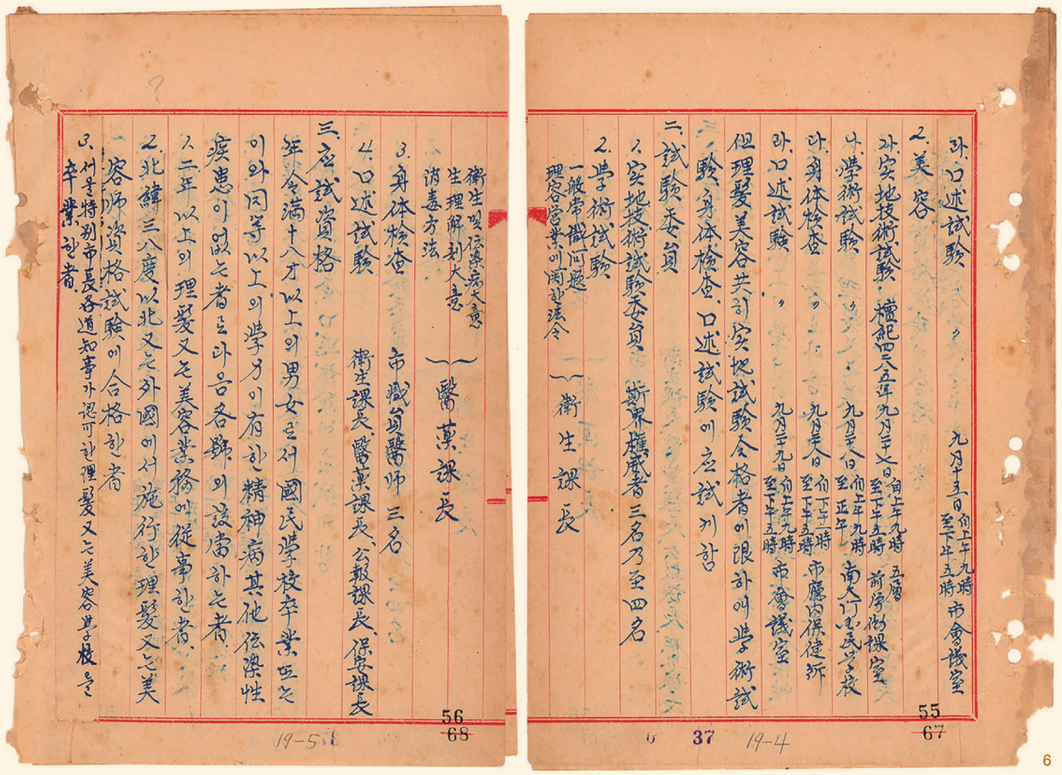
4
〈이발·미용사시험 합격증명서 교부에 관한 건〉, 《공고(제1호~제43호)》,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민과, 1952.06.28.
제1, 2, 4회 합격자에게는 구두시문(구술시험)을 통해 임시 합격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제3회 합격자는 합격자 관계서류와 대조하여 교부하였다.

5
〈1952년도 제5회 이발·미용사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건〉, 《공고(제1호~제43호)》,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민과, 1952.08.18.
제5회 이발·미용사자격시험에 관한 문서로, 시행 취지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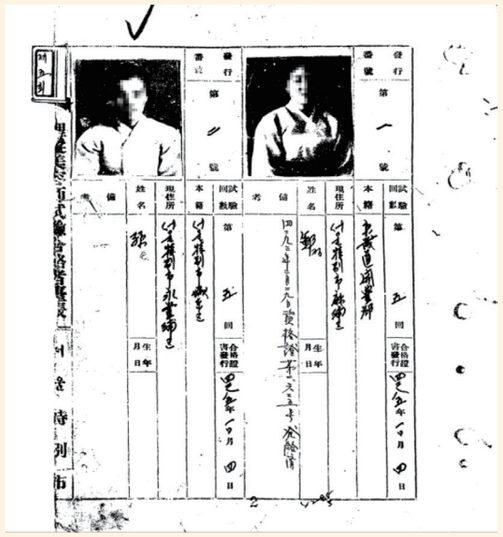

香痕
향흔
에
대한
말씀
화장품과 미용술을 연구하는 경성미용원에서 효과있는 방법으로 친절히 가르쳐 드립니다.
는 그런분이 「할론이」라는 당신들을 발견하여 네 주간만에 부인계대하여 육의한글을 적 어보냅니다 원장원회원선생이 사세에의하여 개 업하시게 되었기 「부인」의주임이되기때문 에 가장의미에서 투잡지를 발행할것이상요 로 당분간「할론」은 그만두고 「할론」에대른가명 을 사용하게 되었읍니다 모든할론에동감지원한 그러케아시 고 항로대신에 이 부인당지를 독하아주시가 를바랍니다.
경성 미용원
京城 美容院
經理 鄭
部長 謹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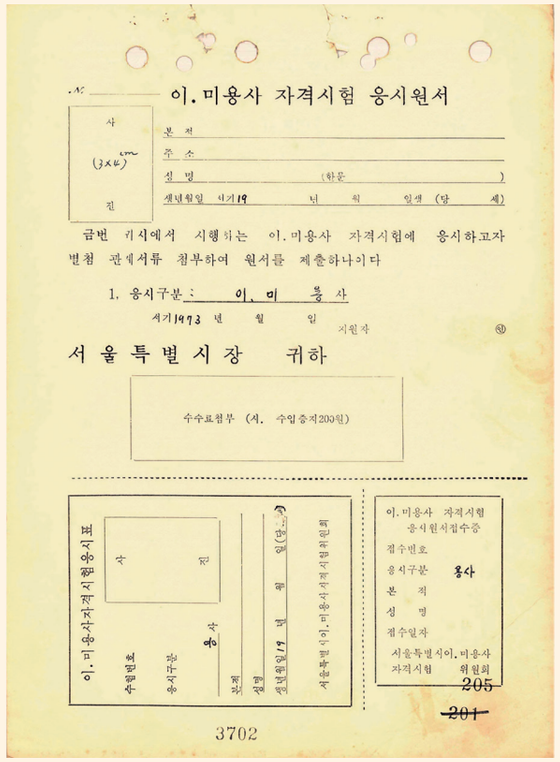




6



7



8

6
〈1952년도 제5회 이발미용사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건〉, 《공고(제1호~제43호)》,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민과, 1952.08.18. 1952년에 시행된 제5회 이발·미용사자격시험의 시험 과목과 응시 자격이 담겨 있다.

7
미용사 면허대장(1952~1957), 서울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1952.10.04. 사진은 제5회 미용사 시험 합격자 면허대장이다.

8
〈1973년도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 실시〉, 《공고(제173호~제189호)》,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민과, 1973.09.22.

시험이 치러졌는데, 이후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2년 9월 재개되었다. 제5회 시험은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없어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자가 발생해 위생 행정상의 지장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배경 아래 시행되었다. 또 기존 합격자 가운데 전쟁통으로 합격증서를 분실한 자에게는 구두시문(구술시험) 또는 서류 대조 등을 통해 임시 합격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1953년 화폐개혁 이후 수험료 200환

당시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남녀로서 국민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으며, 정신병, 기타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로서 다음의 '2년 이상의 이발 또는 미용 업무에 종사한 자', '북위 38도 이북 또는 외국에서 시행한 이발 또는 미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서울특별시장, 각 도지사가 인가한 이발 또는 미용학교를 졸업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였다. '미용사 응시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였다.

시험과목은 '실지기술시험', '학술시험', '신체검사', '구술시험'으로, 기존처럼 실지기술시험에 통과해야 다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학술시험은 '일반상식문제', '이용영업에 관한 법령', '위생 및 전염병 대의', '생리해부대의', '소독방법'이었다. 당시 수험료는 2만원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8,400원(쌀값 기준) 정도이다. 이듬해 시험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1953년 2월 화폐개혁으로 2만원이 아닌 200환(100원→1환)으로 바뀌게 되었다.

1978년부터 제한규정 완전 폐지

1954년부터 시험체제가 다시 정비되기 시작한다. 특히 응시자격에 있어 1976년 '이용사 및 미용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한규정이 폐지되기 전까지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먼저 관련 종사자의 경우 그 인정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그리고 인가된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에서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소정과정을 수료한 후 6개월 이상 실지이용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하였으며, 1965년부터 1968년까지는 수료 후 실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으로 강화되었다가 이후 다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었는데, 1973년부터는 아예 삭제되었다. 1973년에는 '아동복지시설, 특과훈련교도소, 시·도립소년소녀직업보도소 및 시·도립 부녀사업관, 여자기술원에서 이·미용 과정을 수료한 자'들도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76년 모든 제한규정이 폐지되고 '만13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녀'만으로 규정이 유지되다 이 또한 1978년도 제2회 시험부터 사라졌다. 다만 기존의 '정신병, 색맹, 기타 전염성 질병이 없는 자' 항목에 대해 1963년 '간질, 결핵, 나병, 불구폐질자(장애인)는 응시자격이 없음'이 추가된 사항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이발사 시험은 조발과 면도, 소독으로,
미용사 시험은 아이롱, 셋트, 화장으로 세분화

실기능력 심사에도 변화가 있었다.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필기시험을 볼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1967년부터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실기시험을 보는 형태로 바뀌었다. 하지만 시험과목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1958년 실기 시험에서는 '조발(머리 다듬기)', '미안(면도)', '소독'이 처음 눈에 띈다.

1960년 이발사 시험은 '조발', '면도', '소독', 미용사 시험은 '아이롱', '셋트', '화장'으로 세분화되었다. 이후 1963년 이발사 시험에서 '소독'이 빠지고, 1976년에는 미용사 시험의 '화장'이 빠진 형태로 확정된 뒤 '이·미용의 기초적 기술'로 포괄하여 기재되었다.

한편 1962년부터 이·미용사 실기시험 공통과목으로 '소독약의 취급', '위생상의 처치'가 포함되었다. 수험자는 상호모델로서 이용사 실기응시자는 응시 10일 또는 15일 전부터 '이발'이 금지되었으며 미용사 실기응시자는 '머리를 감고 생머리'로 응시하여야 했다.

필기시험(학술시험)은 '상식논문', '위생법대의', '공중위생학(소독학 포함)', '생리위생과 이용대의', '물상학(물리·화학)'에서 1962년 '위생법규', '소독학', '공중위생학(전염병학 포함)', '생리해부학(피부과학 포함)', '물리 및 화학(화장품 화학 및 이·미용에 한함)', '이용 또는 미용 이론'으로 세분화되었다가 1976년부터 '위생법규', '소독법', '공중위생학', '이용 또는 미용 이론'으로 간소화되었다.

가파르게 오른 수험료

가장 큰 변화는 수험료로, 1953년 200환이던 수험료가 1954년 500환으로 오르고, 1956년 1,000환, 1960년 2,000환으로 인상되었다. 수험료는 1962년 6월 단행된 화폐개혁으로 200원(10환→1원)으로 바뀐 후 꽤 오랫동안 동결되었다가 1970년대 경제성장에 따라 고액권이 나오면서 1976년부터 2,000원, 1982년도에는 2,300원이 되었다.

3~4일에 걸쳐 치러진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서울시청 후정 게시판에 게시되었다. 1960년에서 1963년 동안에는 일간신문에 1일간 공고되기도 하였다. 합격증 발부는 1957년까지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수여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이후에는 시청에서 교부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서울기록원에는 이외에도 이·미용사 면허등록대장 등의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고, 현재도 자격증명을 위한 열람은 물론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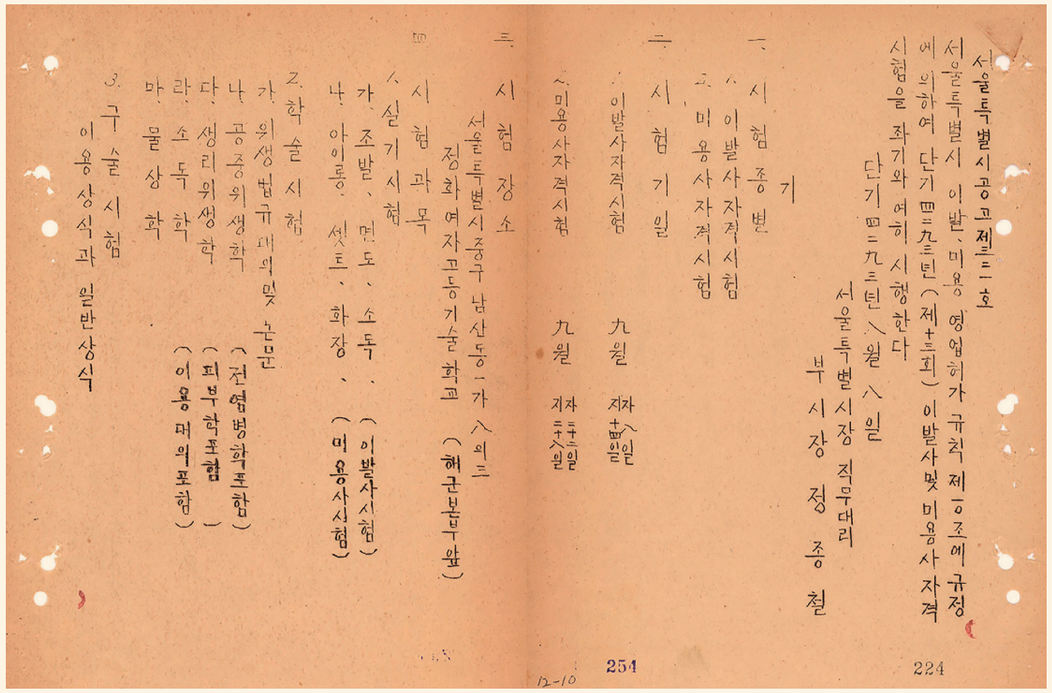
이정희, 『화교가 없는 나라』, 동아시아, 2018.
주동인, 「한국 이용업에 관한 고찰 : 개화기부터 2010년까지」,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인천문화통신3.0(http://news.ifac.or.kr/archives/22869)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s://folkency.nfm.go.kr)

9
〈제13회 이발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건〉, 《공고(제298호~제326호)》,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민과, 1960.08.08.

10
〈1981년도 제2회 이·미용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및 공고〉, 《공고(제344호~제350호)》,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민과, 1981.12.02.
1970년대 중반~80년대 초까지 합격자 공고 기록물을 보면 5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79년 제1회 시험과 1982년 제1회 시험에서는 각 27.4%와 14%로 시험 난이도가 높은 회차였다.

11
제15회 이발·미용사 시험 합격자 대장, 《1992.안마사(2-1)》,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민과, 1962.10.20.

9



서울특별시 공고 제 二一二 호

서울특별시 이발, 미용 영업허가 규칙 제十二조에 규정에 의하여 단기 四二九三년 (제十三회) 이발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을 좌기와 여히 시행한다.

단기 四二九三년 八월 一일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정 종 철

기

一. 시험 종별
ㅅ. 이발사 자격시험
ㄷ. 미용사 자격시험

二. 시험 기일
ㅅ. 이발사 자격시험 九월 十六일
ㄷ. 미용사 자격시험 九월 十七일

三. 시험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一가 八의三
정화여자고등기술학교 (혜군본부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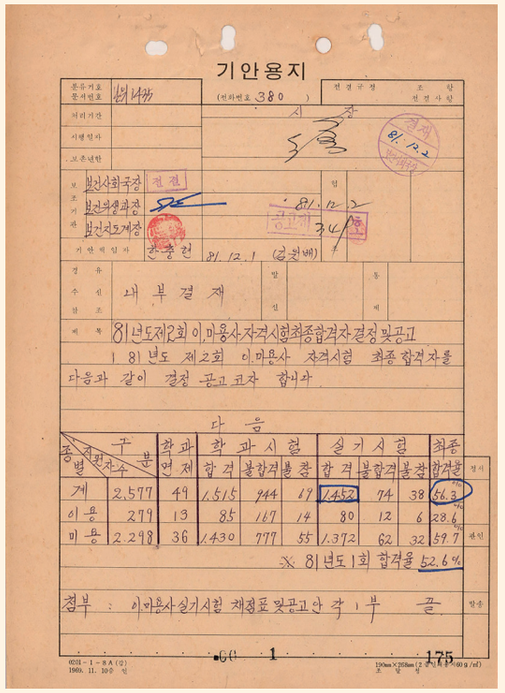
四. 시험 과목
ㅅ. 실기시험
가. 조발, 면도, 소독 (이발사시험)
나. 아이롱, 셋트, 화장 (미용사시험)
ㄷ. 학술시험
가. 위생법규 대의 및 논문
나. 공중위생학 (전염병학 포함)
다. 생리위생학 (피부학 포함)
라. 소독학 (이용 미용 포함)
마. 물상학

五. 구술시험
이용 상식과 일반상식

254 224

12-10

10



기안용지

(전화번호 380)

시행일자 81. 12. 2

보존년한 영구

보존기간 영구

결재 81. 12. 2

협조 81. 12. 1 (결재후)

경유 수신 참조 내부결재 발신 명의

제목 81년도제2회 이·미용사자격시험최종합격자결정및공고

1 81년도 제2회 이·미용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공고코자 합니다

다 음

종별 / 구분	응시자수	참과목 면제	학과시험 합격	학과시험 불합격	학과시험 불참	실기시험 합격	실기시험 불합격	실기시험 불참	최종합격률
계	2,577	49	1,515	944	17	1,452	74	38	56.3
이용	279	13	85	167	14	80	12	6	28.6
미용	2,298	36	1,430	777	55	1,372	62	32	59.7

※ 81년도1회 합격률 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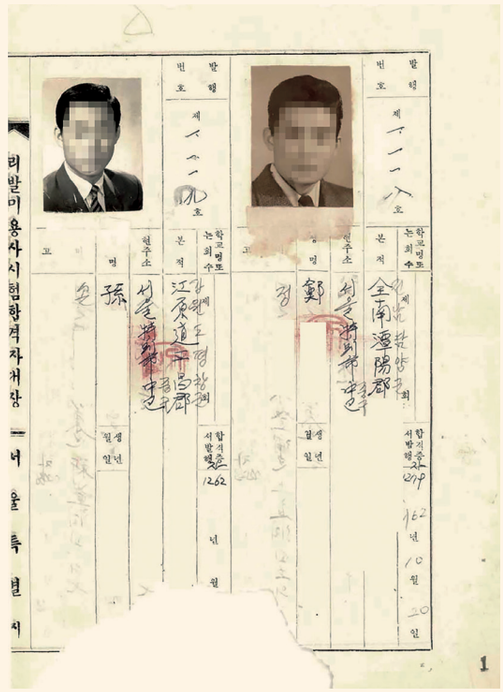
첨부 : 이·미용사실기시험 채점표 및 공고안 각 1부. 끝

결재 81. 12. 2

0201-1-8A(2) 1980. 11. 30 인

190mm×268mm (2종 백상지 60g/㎡)

11



이발미용사시험합격자대장 서울특별시

발행번호 제 一一一八 호
논문번호 제 一一一九 호
본적 江原道 平昌郡
현주소 서울特別市
성명 鄭
생년월일 1962
합격증서발행일 1992. 10. 20
합격번호 제 一六二 호

발행번호 제 一一一八 호
논문번호 제 一一一九 호
본적 全南 潭陽郡
현주소 서울特別市
성명 孫
생년월일
합격증서발행일 1962. 10. 20
합격번호 제 一六二 호

1

봉제장인, 영화 간판장인, 완구업체 사장님, 독립모형 제작자…

서울기록원이 직업을 기록하는 법



1

기록은 시간을 초월한다. 이 믿음은 과거의 기록유산을 잘 보존하고 현재의 공공기록을 잘 남기는 것에 머물지 않고, 폭넓게 시민기록을 발굴하는 일을 계속하는 기반이다. 기록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금을 더 가까이에서 풍부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 경험과 문화를 전하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1
서울과학사

2
영화 '서편제' 간판을 그리고 있는 박춘태 영화간판장인

3
서울기록화 사업에서 만난 태극라사 박창규 재단장인

서울기록화 사업 통해 만난 '봉제장인'과 영화 '간판장인'

시민들의 다채로운 기록활동을 지원하는 서울기록원이 꾸준히 시민기록을 연구, 수집하고 있는 이유 또한 이와 연결돼 있다. 그리고 서울기록원의 여러 활동 결과물에는 자연스레 '직업'이 담긴다. 기록이 대개 '사람'이 하고 남긴 일과 이야기라 그렇기도 하거니와 초기부터 의식적인 노력을 투입한 결과이기도 하다. 시민의 구체적 삶의 이야기가 곧 서울이라는 시공간과 연결된 서사이자 재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기록원이 직업을 기록하는 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더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째가 서사적 맥락으로 다원적인 기록화를 기반 삼아 서울을 재현하고자 하는 장기 프로젝트 '서울기록화 사업'을 통해서다. 2019년 서울기록화 사업은 서울 창신동 봉제마을의 장인들과 영화 '간판쟁이'들에게 다가갔다.



2



3

"제가 여기 창신동에 들어온 때가 1977년 3월 15일이었어요. 동네 양복집에서 쭉 일하다가 1990년 5월에 제 양복점을 개업했는데, 첫날 동네 분들이 15벌이나 주문했어요. 밤잠을 줄여 입술이 틀 정도로 일했어도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양복 한 벌 맞추는 일이 그리 쉬운 때도 아니어서, 잘 만들어진 양복을 입으면 사람들로부터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깔끔한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이 대접을 받는 일인 것 같아요."

당시 인터뷰한 '태극라사' 박창규 재단장인의 말이다. 그의 직업장에는 고객장부부터 작업도구, 옷본 등 남성복 봉제의 역사를 품고 있는 기록물이 적지 않았다.

또 1950년대부터 단성사, 피카디리극장, 국도극장, 대한극장, 서대문극장 등 단관 극장에서 영화 간판을 그려온 박춘태 선생과 김영준 선생이 전한 경험 또한 '사라져가는 것들의 안부'이자 우리나라 영화사에 꼭 남겨 놓아야 할 이야기였다.

영상으로 소개하는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영상으로 '지금, 여기, 함께' 서울과 호흡하며 '기록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양한 시민을 만나보는 프로젝트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또한 서울기록원이 직업을 담아내는 하나의 방식이다.

첫 에피소드에서 소개한 이들은 열정적으로 '서울'을 성찰하며 탐구하고 있는 총 3팀. '서울수집'은 서울의 주요 재개발 지역을 탐구하며 사진과 글로 현장을 기록하고, '이상한 도시 서울'은 서울의 건축과 도시 공간에 대한 현장 탐구와 아카이빙이 주요 콘텐츠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마추어 서울'은 지도를 매개로 서울시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아카이브 프로젝트 그룹이다.

이어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후암동에서 '후암주방', '후암거실' 등 공유공간 기획과 마을아카이빙 활동을 해오고 있는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를,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사물과 구조물들을 3D 프린팅으로 재현한 다음 조립 모형 키트와 아카이브 모형을 제작해 빠르게 사라져가는 서울 곳곳의 단면을 모형으로 제작하고 있는 '서울과학사'를 만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외 〈아카이브 서울〉 〈아카이빙북〉 등 서울기록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출판물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수많은 시민 '기록 덕후'들을 만날 수 있다. 취미로 오래된 간판을 5년 넘게 찍어온 간판사진기록가 양두환 씨부터 수십 년 동안 'SF'에 매료돼 관련 소설과 잡지 등을 섭렵하다 'SF아카이브'를 구축한 박상준 씨, 서울 동네를 스케치로 남기는 정연석 작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목욕탕을 사진으로 기록한 이재영·박현성 씨 등이 그들이다.

이상의 이야기들은 여러 소셜미디어로도 서비스되는데, 다양한 방식과 채널로 서울기록원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료하다. 우리 가까이 있는 기록을 즐기고, 그 경험을 공유하면 서울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직업 이야기는 그 중심이 될 터. 서울기록원의 '직업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밥벌이의 고단함부터 자아 성취까지, ‘희로애락’ 직업의 세계 속으로

직업은 사회의 거울이다. 사회의 변화는 직업에 영향을 미치고, 직업의 변화는 곧 산업과 사회의 흐름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급속도로 발전한 한국 사회는 그만큼 직업도 빠르게 생기고 사라지는가 하면 분화하고 다양해져왔다. 우리나라 직업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한국사회 직업 변천사와 다양한 양상을 담은 각기 다른 매력의 아카이브를 찾아보았다.

#1 근현대사를 담은 직업 이야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www.much.go.kr

과거 유행했던 말이나 행동이 사라지듯 직업도 시간이 흘러 사라진 것들이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소장자료를 보다 보면 ‘그 시대에 이런 직업이?’라는 반응이 자연스레 나온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467명의 기증자로부터 7만5,533점(2021. 12. 31. 기준)의 자료를 기증받았다. 이 중 많은 기증품이 우리의 일상과 뗄 수 없는 직업, 일과 관련한 자료들이었다. 역동적인 우리 현대사 속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이 남긴 흔적은 그대로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었다.

온라인박물관의 VR 전시에선 방직공장의 기능공, 버스안내양, 파독 간호사, 중동 건설근로자 등 지금은 교과서에서나 접할 법한 과거의 직업들을 만날 수 있다. 기능공의 야무진 손끝으로 옷을 지었던 당시의 오버로크 재봉틀, 도면, 저울 등이 보는 이의 흥미를 돋운다. 버스가 주된 교통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오라잇~’ 경쾌한 목소리를 내던 추억 속 버스안내양의 모습, 철도청 1기로 입사한 기증자의 정모와 명찰, 배지 등도 이채롭다. 이방의 불모지에서 뜨거운 태양과 모래 폭풍을 견디며 일했던 중동 건설근로자의 여권, 티켓, 근로자 노트, 슬라이드 필름 등도 눈여겨볼 만하다.

2020년에 개설된 온라인 기증자료관은 기증자들의 이름으로 기증품을 찾아볼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다. 파독 광부로 일했던 기증자가 기증한 목욕수건은 사진 한 장만으로도 뭉클함을 전한다. 높은 수입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독일 탄광으로 떠났던 당시 우리 국민은 7,900여 명. 타지에서 고된 노동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겨내며 일했던 우리 아버지들의 역사가 작은 수건 한 장에 담겼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이용자들에게 기증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기증자에게는 자료수증증서가 발급되고 온라인 기증자료관에 이름이 게시되는 특별한 기회도 주어진다. 침대 밑, 책상 서랍 속 잠자던 내 물건들이 새로운 역사를 증거하는 귀중한 기증품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온라인박물관 VR 전시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온라인 기증자료관

3
파독 광부로 일했던 기증자가 독일 루르광산에서 재직할 때 사용하던 목욕수건





#2 여성 직업 운동의 발자취가 담긴 기록저장소

YWCA 아카이브 ywca-archive.or.kr

1970년대만 해도 도배공, 타일공, 페인트공은 ‘남자들이나 하는 일’로 간주되었다. 여성이 전형적인 남성 노동 영역에 진출해 성별의 경계를 깰 수 있었던 것은 여성 직업개발 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여성 직업 운동의 발자취와 활약상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곳이 ‘YWCA 아카이브’다. YWCA 아카이브는 1922년 창립된 한국YWCA가 여성 운동의 유산과 가치를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역사기록물 저장소다. 이곳에서 YWCA의 여성 직업훈련과 관련된 기록물과 사진을 볼 수 있다. ‘기록’ 페이지의 ‘여성-직업개발’란에는 직업훈련과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근로개선 활동의 역사가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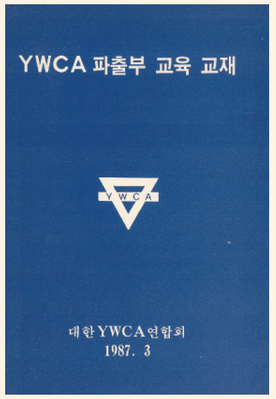
한국YWCA의 역사는 여성의 직업훈련과 직종개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1년 최초의 여성 직업훈련을 시작으로 YWCA에서는 사회변화에 따라 필요한 직업훈련을 해왔다. 직업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후암동에 문을 연 ‘소녀의 집’은 50명의 기숙사생이 기거하며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꽃꽂이, 미용체조, 요리강습, 소창 등을 배우고 일어와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콘텐츠-여성운동’에는 여성들과 함께한 다양한 직업훈련을 전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출부 교육 교재를 발간해 파출부 훈련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청소법, 세탁법은 슬라이드로 만들어 실습할 수 있게 했다. ‘식모’로 불렸던 여성 돌봄 노동자를 ‘파출부’라는 직업인으로 새로이 명명한 일은 YWCA의 직업개발 노력의 흔적이다.

직업훈련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다 보면 YWCA가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는 데 적지않은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YWCA 아카이브는 기독 여성시민단체인 YWCA의 기억을 남기는 의미뿐만 아니라 여성 직업개발 운동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1 2





1
YWCA 아카이브

2
대한YWCA연합회에서 제작한 파출부 교육 교재

#3 여성 이발사의 가위, 최초 여기자의 후배양성 저금통…

국립여성사전시관 eherstory.mogef.go.kr

국립여성사전시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을 조명하고 역사 발전에 기여한 여성인물을 발굴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국립 여성박물관이다. 여성의 생활사 및 역사,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수집된 소장품의 수는 약 6,500점(2022년 기준). 이 중 1890년대부터 100년간 근현대사의 한 축을 이룬 여성들의 직업과 관련하여 유물, 사진자료, 신문기사, 영상 등 12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관엔 독일로 떠난 우리나라 여성 간호사들이 활동하던 시절의 사진과 그들의 유품이 오밀조밀 정리되어 있다. 또 한동안 잊고 있던 화장품 판매원이나, 요구르트 판매원 사진도 반갑다. 민간지 첫 여성 기자 최은희가 여성 언론인을 양성하기 위해 매달 저축을 한 양철통, 아버지 어깨 너머로 이발 기술을 배웠다는 여성 이발사 이덕훈의 이발가위, YWCA 도배사 직업교육 1기생 김말녀의 작업복과 작업 도구 등이 전시돼 여성 직업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매달 새로운 소장품을 공개하는 '이달의 소장품'은 전시에 생생한 현장감을 더한다. 근대 조리서 〈조선요리제법〉, 여성 잡지 〈여원〉 등을 통해 다양한 조리법 전수, 전통 계승을 모색했던 여성들의 활동과 요리연구가라는 직업의 탄생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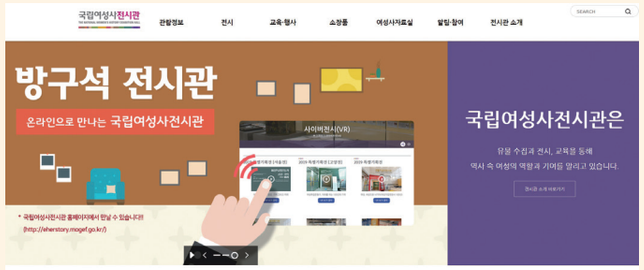
여성들의 인터뷰 구술 자료와 영상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현재진행 중인 코로나19 상황 속 여성의 활동과 직업도 다루고 있다. 응급의료센터장, 병원감염관리자 등 의료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과 면 마스크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방역소독 전문가 등 각자의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다.

세상에 나가 직업을 얻고자 했던 많은 무명의 여성부터 훌륭한 성과를 이룬 여성 직업·직능 1호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성들의 모습을 만나고 싶다면 국립여성사전시관을 방문해 보자.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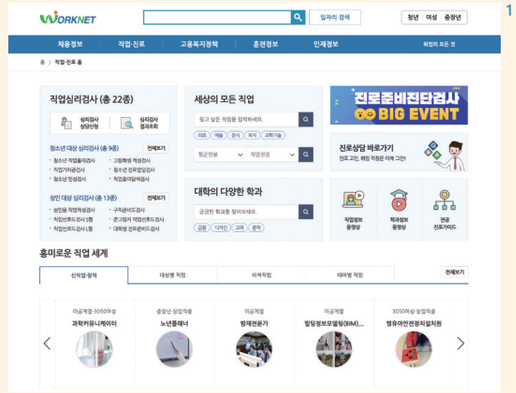
1 이달의 소장품, 1950년대 여성 잡지 〈여원〉

2 국립여성사전시관

#4 한눈에 탐색하는 우리나라 직업의 총람

워크넷 www.work.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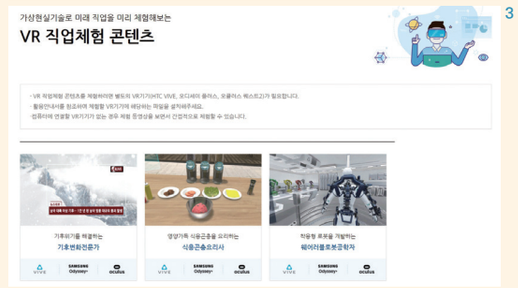
1



2



3



워크넷에는 우리나라 16,891개(2019. 12. 31. 기준)의 직업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들여다보면 수박 겉핥기 수준이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없는 직업의 상세한 설명과 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다.

워크넷의 '직업·진로' 메뉴를 선택하면 적성, 성격, 연봉, 직업 전망 등을 종합해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찾기가 가능하고 여러 조건에 따라 직업을 탐색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직업을 워크넷 검색창에 입력하면 해당 직업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면서도 세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만약 '기록연구사'라는 직업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입력해 어떤 자격, 훈련, 능력이 필요한지, 연봉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어떤 성격이나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 잘 맞을지, 말 그대로 기록연구사의 거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직업전망'과 '한국직업사전'은 직업 분야 연구원들이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 직업을 조사해온 기록의 결과이다. '분류별 찾기'를 통해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직업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분류별 찾기로 나온 직업 중 하나를 클릭하면 관련 학과, 자격, 필요한 직무 역량과 지식까지 빈틈없이 알 수 있다.

워크넷을 활용하면 미래의 새로운 직업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직업 동영상·VR' 메뉴에서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콘텐츠가 제공된다. VR 콘텐츠를 통해 해양드론전문가가 되어 무인 드론을 조종하고 바다 환경을 점검하는 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 혹시 새로운 직업을 고민한다면 단순히 성적만으로 결정하기 전에 워크넷의 직업 정보를 검색하기를 권한다.

1 워크넷

2 워크넷의 한국직업사전

3 가상현실기술로 미래 직업을 체험해보는 VR 직업체험 콘텐츠

저는 마케터이고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케터이자 작가 이승희와 나눈

‘직업 그리고 기록’

상품과 서비스 뒤에 가려져 있어 언뜻 잘 드러나지 않는 존재,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매일 모두가 만나는 직업이 바로 마케터이다. 마케터는 사람들이 가지는 다양한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지갑을 어디에 다 여는 것이 현명한가’를 일러주는 믿음직한 인도자이다.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의 꿈과 소원과 행복은 대개 얼마나 훌륭한 마케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마케터에게도 ‘기록’이 닿는 지점이 있을까? 마케터의 일에는 기록이 어떻게 생산되고 활용될까? 기록이 이 ‘핫한’ 마케터의 세계에 몹시 쓸모 있는 도구가 되기를 잔뜩 기대하며 눈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가 이승희 마케터였다. 마구 쓰고, 계속 쓰고, 쓴 것을 꺼내고 나누는 데 거침없는 마케터 이승희 씨. 그녀라면 아마도 이 ‘저의 가득한’ 질문과 기대에 사심 없이 유쾌한 답을 해줄 것이 분명하므로.



마케터이자 작가이자 일타(?) 강사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이승희 씨는 자신을 기록하고 그 경험을 나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너도 좋아하게 만드는 사람

마케터로 일하는 초기에 이씨는 치과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환자들이 많이 오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했다. 그 뒤 ‘배달의민족’에서 브랜드를 가꾸는 일을 했고, 지금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자체 운영 서비스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마케터가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몸담고 있는 브랜드나 서비스를 알리고 판매하고 때로 좋아하게까지 하는 일련의 일들을 하는 게 마케팅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이게 좋다’고 말하려면 나부터 이게 왜 좋은지, 그 좋은 걸 어떻게 하면 고스란히 알게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 일을 잘하고 싶어서 그가 한 일은 기록하고 또 기록하는 거였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회의할 때 나오는 모든 말을 다 적어두었다. 그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이니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녀만의 무기가 되어 있었다.

“기록에 특출난 재능이 있다기보다 저의 무기는 계속해서 적는 습관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록해 놓으니까 아카이빙이 되고, 아카이빙을 하니까 일의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게 되고, 어젠다가 눈에 보이고. 어디에서 아이디어가 발전되는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이승희는 불쑥불쑥 만나는 영감들을 바로바로 수첩에 적어둔다

마케팅 일과 마케팅하는 나를 기록하는 일

마케터로 밤낮없이 일하던 이 씨는 어느 날 건강이 훅 나빠졌다. 마케팅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신나게 쓰고 일하던 시절이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문득 이대로 일을 못하게 되면 나한테 뭐가 남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 회의록은 엄청 써놨는데,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를 시작했어요. 내 이야기를 써보자 싶어서요. 근데 막상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연애나 가족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고민하다가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가장 두꺼운 페르소나를 동원해서 글을 써야겠다. 나는 내내 일, 일, 일 하면서 살았으니까, 일하는 나, 일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써보자’ 한 거죠. 요즘은 ‘업세이’가 대세라고도 하니까요.”

업세이는 일을 뜻하는 한자 ‘업業’과 수필을 뜻하는 영어 ‘에세이essay’를 합친 말이다. 자기가 하는 일, 자기한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새로울 수 있는 이야기가 최근 서점가에서 새로운 인기 장르로 자리잡았다.

병원 침상에서 시작된 그의 글들은 모이고 모여 〈기록의 쓸모〉와 〈별게 다 영감〉이라는 책이 되었다. 기록은 더 유능한 마케터가 되는 데에도, 유용한 책을 내는 작가가 되는 데에도 몹시 쓸모 있는 활동이 된 것이다.

첫 번째 무기는 겁 없이 쓰고, 그것을 계속하는 것

이승희는 ‘영감노트’에 별별 일을 다 기록한다. 오늘 아침에 한 생각도,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지난달에 읽은 책도, 맛집도 모두 소중한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며칠 전에도 밥 먹다가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분이 아파트를 아직 못 사서 너무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게 없어서 못 사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분이, ‘정보는 이미 차고 넘치고 너도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다. 결국엔 아파트를 매매하는 건 용기의 문제다. 모든 건 용기가 팔 할인 거 같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좋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써놨죠.”

물론 쓴다고 모든 기록이 다 무기가 되지는 않는다. 이승희 씨는 자기의 일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일을 잘하고 싶어 그때그때 떠오른 영감



들을 바로바로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고 그것을 말 그대로 줄기차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했다.

"일을 잘하고 싶은 욕심이 크니까 동료들하고 글쓰기 모임을 하기도 했어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장문을 쓰는 연습을 해야 카피 같은 강력한 한 줄도 잘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의 글쓰기'라는 모임을 하면서 긴 글 쓰는 연습을 했지요. 긴 글을 쓸 때는 제가 그때그때 써 두었던 짧은 메모들을 들춰보면서 화두로 쓰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해요. 나중에 마케팅할 때에도 이런 걸 요소로 써먹고요."

두 번째 무기는 나의 기록을 꺼내 보이는 기꺼운 마음

마케팅도 엄연한 직업의 세계이고,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고 좋은 걸 나만 알고 있어야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달랐다.

"그동안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동료들이랑 이런 인사이트, 그러니까 영감들을 많이 나누는 편이었어요. 마케터는 늘 일을 만들어내고 기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가 좋았는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같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쏟아내야 하는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요. 더 큰 건, 저는 '이 맛집 나만 알고 있을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알면 다 알았으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회의할 때에도 제가 받았던 영감을 던지면 그게 막 발전되는 걸 경험하거든요. 혼자만 갖고 있을 때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이승희 씨가 쓰는 기록의 도구들

마케터의 기록 도구

그때그때 떠오르는 영감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바로바로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붙들어두는지, 오래오래 보존해야 할 이야기들은 또 어떻게 챙기는지 그만의 노하우가 몹시 궁금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핸드폰 메모 어플이나 SNS 채널들이에요. 그리고 수첩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하는데요. 조그만 노트에는 영감 받은 것만 쓰고, 결혼 준비나 일기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는 주제에 맞게 노트를 달리해서 쓰고 있어요. 혹시 영감노트에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쓰게 되면 그날 자기 전까지는 꼭 제자리로 옮겨두어요. 수첩은 한 가지 형태를 고수합니다. 모양이 다르면 막 흩어지더라고요. 꽂아 보니까 양도 가늠이 되고 잘 모이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거 같아요. 다시 내용을 찾아야 하거나 활용이 중요한 기록들은 수첩보다는 디지털 도구에 써놓는 게 더 나아요."

어디에 무엇을 기록해두는지 원칙이 명확하면 나중에 활용할 때에도 질서가 생긴다. 이 씨는 이 일을 헷갈리지 않고, 또 미루지 않는다. 쓰고 쓴 것들을 제자리에 두는 일은 어지간하면 놓치지 않는 일상의 루틴이 되어 있다.

기록을 해서 좋은 것들

기록을 하면서 그는 마케터나 회사원으로서의 자아 말고도 책을 쓰는 저자로, 강의를 하는 강사로, 인터뷰이로 여러 정체성이 생겼다. 마케터라는 세계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여러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 숨통이 트이는 것이 아주 큰 변화라고 했다.

"선배 한 분이 너무 오래 이 일만 하다 보니 일이나 일터의 상황에 따라 자신이 너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좀 우울했대요. 그래서 대학원을 갔는데 다른 세계와 만난 것만으로도 정말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세계를 만든다'는 표현이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기록이 그 다른 세계를 열어준 소중한 도구예요."


기록이 함께하는 풍경

이승희 씨가 다른 인터뷰에서 한, 좋은 마케터, 좋은 작가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제가 그런 말을 했었군요!(웃음) 계속해서 쓰는 것. 그게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경험한 것을 쓰려고 하면 반성적인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다가도 쓰다 보면 저를 괴롭히던 마음이나 태도가 어떤 건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막 써나간 거친 글을 고쳐 나가면서 저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완전히 좋은 사람은 아니어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선언해 놓으면 그 선언 때문에라도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쓴다는 것'이 저에게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인 거 같아요."

이승희 씨에게 기록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카피하거나 누군가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존재감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의 믿음처럼 지금 시대 가장 핫한 직업인 마케터에게도, 다가오는 미래 직업의 세계에도 기록은 존재의 고유성을 지키고 나아가 차별성을 만들어주는 힘이 될 것이다.

지금하세요, 기록유산을 '열람할 결심'



1



2



3



4

1
김지혜 주무관이 열람신청 기록을 찾고 있다.

2
홈페이지에서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3
열람실에는 서울시와 기록 관련 도서 등이 비치되어 있다.

4
온라인으로 기록을 검색하고 열람신청이 가능한 열람실의 컴퓨터

2019년 개원한 서울기록원은 서울의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서비스하는 기록관리 전문기관이다. 서울시에서 만든 행정기록은 물론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서울이라는 공간과 시민의 삶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져 왔고,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지와 같은 '삶의 기록'도 함께 모아 기록유산으로 관리한다. 서울시와 시민의 기록을 총망라하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기록원은 이렇게 모은 귀한 기록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기록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기록을 통해 추억을 소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언제든 시민이 원하는 서울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열람서비스'이다.

열람서비스는 단순히 소장기록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와 기록을 연결하고, 이를 해독해서 깊이있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기록열람을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의 시·공간적 흔적과 각자의 기억의 접점을 찾아볼 수 있다.

서울기록원에 '열람실'이 있어요

서울기록원이 소장한 기록을 찾고 열람할 수 있는 곳은 2층에 자리한 기록열람실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 및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공공기록물과 서울 및 서울시민의 삶을 보여주는 시민기록을 포괄하고 있다. 시민들은 '공개범위' 안에서 이 기록들의 실체를 열람할 수 있다. 기록열람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곤 늘 문이 열려 있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처럼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고, 기록을 볼 수 있는 열람석이 마련되어 있다. 도서나 기록물로 전시도 열어 누구나 기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열람실을 직접 방문하는 이는 하루 평균 10명 이내. 서울기록원이 도서관처럼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소장기록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까닭이다.

어렵지 않아요, 기록열람을 위한 안내서

서울기록원에서 열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혜 주무관은 기록원이 결코 어렵지 않은 곳이니 마음껏 이용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과 달리 기록원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큼직하게 열람실이라고 써두었는데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인지 미심쩍어 해요. 여전히 문을 빼꼼 열고 '들어가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기록열람실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당당하게 들어오셔서 묻고, 설명을 듣고, 편하게 원하는 기록을 찾아보세요."

이어 김 주무관은 "기록은 책처럼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박물관 소장품과 같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미적 가치가 높은 미술관 전시물 못지않게 다양한 감흥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기록원 이용의 기본-기록열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볼 때와는 달리 기록원에서 기록을 열람할 때 시민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서울기록원에서 어떤 기록을 볼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기록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다.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기록을 살펴볼 수 있을까?



5



6

5
기록열람실은 늘 두 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시민들의 기록열람을 돕고 있다.

6
기록열람실은 시민 모두를 위해 열려 있다.

7
대형 기록물 열람을 위한 데스크



7







기록열람실
전경과 보존서고

① 상자를 열기 전엔 알 수 없어요

자, 당신 앞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는 비밀 선물상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면 어떤 것을 갖고 싶은지도 알 수 없다. 기록원의 기록이 바로 이 비밀 선물상자와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빠르면서도 좋은 방법은 서울기록원 홈페이지archives.seoul.go.kr에 들어가서 '기록찾기' 코너를 이용하는 것이다. 기록찾기 아래 '조사연구가이드' 코너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정보를 묶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시정사진 컬렉션'은 과거 서울의 특정 행사나 기념식, 또는 과거의 서울시 공간이나 서울시민의 삶을 보여주는 사진이 담겨 있다. 2022년 현재 약 10만 건의 사진이 디지털화되어 제공된다. 예를 들어 '토지구획정리사업기록'을 선택하면 서울시가 토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만들고 택지를 공급하면서 각 토지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가락지구, 강동지구, 개포지구, 경인지구 등 구획별로 보여준다.

그 외에도 둔촌주공아파트, 서울의 공원 등 키워드별 기록을 살펴볼 수 있으며, 소장기록을 하나의 이야기를 가진 다큐멘터리처럼 엮어 서술하듯 전달하는 기록콘텐츠도 마련되어 있다. 기록 목록을 살펴봄으로써 서울기록원에 어떤 기록이 있고, 그 기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도 있다.

'서울기록원 카달로그 이용방법'을 통해 기록을 이해한 후 열람실을 찾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서울시의 특정 업무나 지역, 공간 등을 주제별로 검색할 수 있고, 조직과 단체, 인물 등 행위자별로 여행하듯 기록을 탐색할 수 있다. 아울러 검색창을 통해서 기록을 검색해서 그 안에서 원하는 정보로 좁혀갈 수도 있다.

② 원하는 기록은 이렇게 신청하세요!

이제 당신은 비밀 선물상자를 열었다. 무슨 기록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중에 보고 싶은 기록물을 찾았다면 이제 그 기록을 살펴볼 차례이다. 서울기록원에 소장된 기록은 보는 방법에 따라 컴퓨터에서 '바로 보기'와 '다운로드'가 가능한 기록, 열람을 신청해야 볼 수 있는 기록,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기록으로 나뉜다. 우선 컴퓨터를 통해 바로 열람이나 내려받기가 가능한 기록은 전자기록물이거나, 비전자기록물을 전자기록물로 변환한 기록물이면서 공개된 기록물을 말한다.

둘째, 열람을 신청해야 하는 기록은 해당 기록이 아직 홈페이지에는 업로드되어 있지 않거나 공개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 기록원에서 확인한 다음 온라인으로 열람하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기록을 말한다. 열람 신청 후 하루 정도 지나면 온라인에서 해당 기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열람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필수. 해당 기록의 실물을 보고 싶은 경우에는 열람실을 방문해 원본을 볼 수도 있다.

셋째,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기록은, 해당 기록이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인 경우를 말한다. 이 기록은 온라인에서 목록과 상세정보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기록물 자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원문을 확인하려면 기록열람실을 방문해 '제한적 열람'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기록을 볼 수 있다. 눈으로만 확인 가능하며 복사 등은 불가능하다.

이밖에 열람서비스만으로 원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기록을 원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을 통해서 정보공개 안내와 목록,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한 다음 해당 기록물에 대해 서울기록원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하면 '공개' 처리가 된 기록물이 제공되거나 제한적 열람 등이 가능하다.

열람 신청 기록의 대다수는 토지 관련 기록

2019년 개원 후부터 2021년 말까지 기록열람 신청 건수는 총 1,893건이었고, 이를 통해 제공된 기록은 9만723건이다. 서울기록원이 알려지면서 기록열람 건도 해마다 크게 늘어 2020년에는 732회 기록열람 신청에 2만4,107건이, 2021년에는 1,065회 신청에 6만5,656건의 기록이 제공되었다. 신청 건수는 1.5배 증가했고 제공된 기록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만큼 한번 신청에 요청하는 기록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2022년에는 6월까지 464회 열람신청에 4만4,362건의 기록이 제공되어 2021년도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제공된 기록의 대부분은 '조상 땅 찾기'와 같은 토지 관련 기록물이다. 지번과 소유자명 등을 통해 토지의 위치나 경계, 소유권자의 변동이나 납세 현황, 특히 토지에 따른 보상 유무를 확인해 소유권을 되찾거나 조정 또는 확인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많다. 이렇듯 토지 관련 기록 이용자가 많은 까닭에 김지혜 주무관은 열람서비스 담당이 되었을 때 가장 주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가 토지 관련한 기록의 이름과 그 내용을 익히는 것이었다고 한다.

"정보공개청구와 열람 신청이 각각 하루 5~6건 정도이고, 이 중 90% 이상이 토지 관련이에요. 다시 70%는 토지 보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해당 토지의 지번을 가지고 '면적측정부'나 '토지이동결의서', '측량원도' 등의 기록을 요청하는데 이 기록들로 면적의 변화나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보상 현황 등을 확인하는 거죠. 토지와 관련해 저희가 30년이 넘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으니 관련해 옛날 기록이 필요한 경우 대개 서울기록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서울기록원에 차곡차곡 쌓인 과거의 기록은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것이 기록의 힘이자 서울기록원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기록물을 제공하는 이유이다.

미니 인터뷰_ **'기록안내자' 김지혜 주무관**

"아직도 기록열람자가 되지 못한 당신에게"

Q1 기록열람은 일반적인 도서열람과 비교해 어떤 차이와 의미가 있을까?

도서관마다 소장도서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책들을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서울기록원의 기록은 유일무이하게 이곳에서만 볼 수 있어요. 서울의 역사와 서울시민의 삶, 서울이라는 공간의 변화, 또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 행정의 단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이 서울기록원에 있어요. 흐릿한 나의 기억과 기록이 만나는 지점을 확인할 수도 있죠. 이런 기록물이 주는 감동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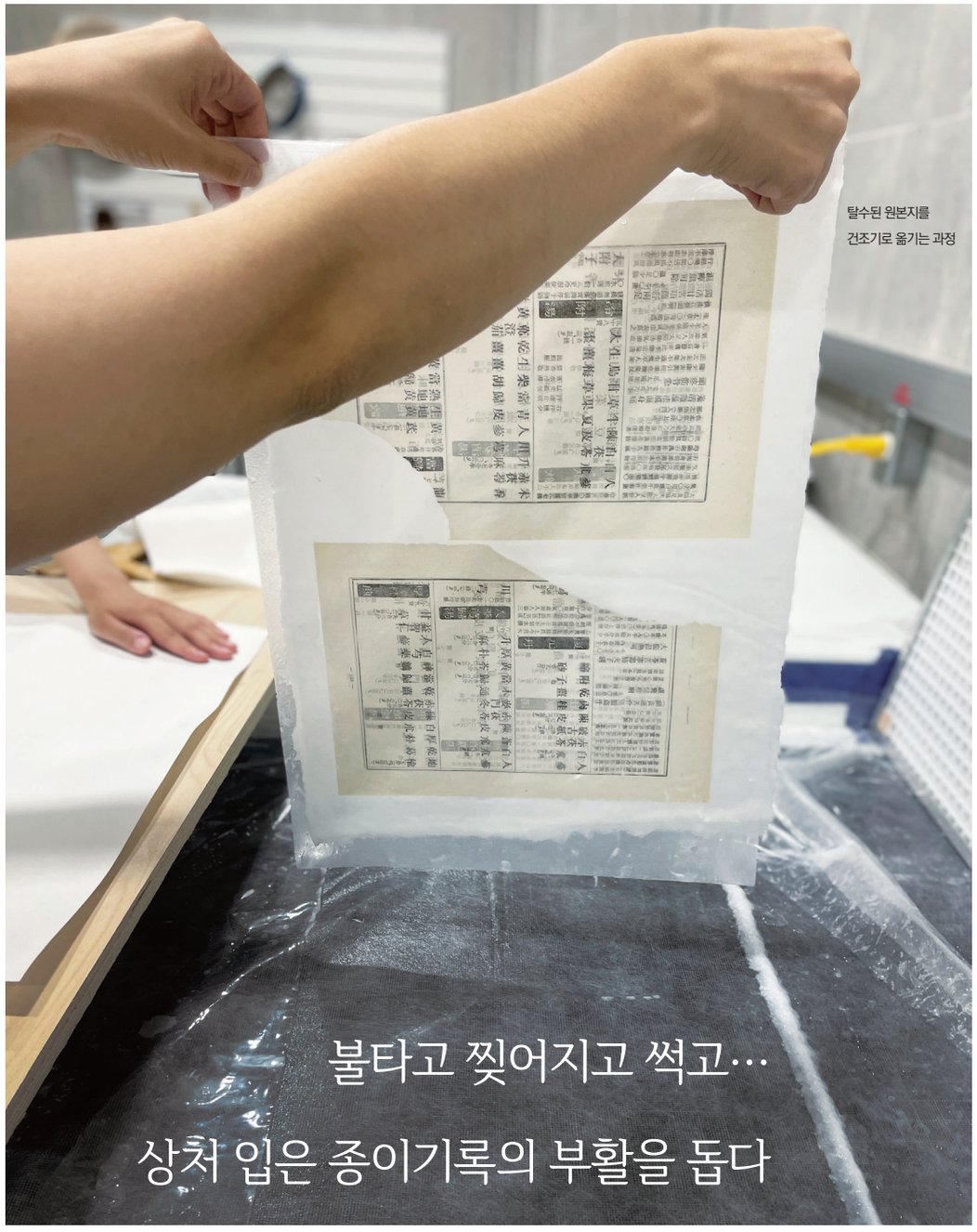
Q2 가장 기억에 남는 이용자가 있다면?

보육원에 대한 정보를 찾던 형제 두 분이 기억나요. 어려서 두 분 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계셨다는데, 기억하고 계시는 게 보육원 이름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이리저리 검색해서 당시 보육원 기록들을 찾아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3 아직 열람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기록원 열람실은 늘 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정확히 원하는 기록의 이름을 몰라도 내용을 좁혀가며 최대한 원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기록을 찾아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천천히 기록을 찾고 보는 법을 배운다고 편하게 생각하고 방문해주세요!





탈수된 원본지를
건조기로 옮기는 과정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생물유기체에 빗대 기록관리 전반을 설명하는 표현이 있다. '기록 생애주기'이다. 이에 따르면 생산·등록된 기록은 '보관과 유지' 기간을 거쳐 오랫동안 활용되다가 평가과정을 거쳐 더 이상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 기록물 보존기간이 1년부터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와 영구까지 총 7가지로 구분돼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본 기록물을 오랫동안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업무는 기록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매체에 담겨 있든 유용한 기록이라면 물리적으로 보존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언뜻 기록 대부분이 전자기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서울기록원은 1910년대 초반 토지 관련 기록부터 2000년대 생산된 전자기록까지를 아울러 관리, 보존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다. 이는 서울기록원 보존서고에 빼곡한 기록물 대부분이 종이기록이고, 시간의 켜를 입고 복원을 기다리는 기록물도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다.

산성화와 열화, 빛이나 습도에 손상되기 쉬운 종이기록

종이기록물은 주로 양지로 되어 있다. 양지에는 쉽게 산화되는 '리그닌Lignin'이라는 성분이 있어 산성화나 열화, 또는 빛이나 습도 때문에 부서지는 등 훼손이 발생하기 쉽다. 보존, 그리고 복원이 중요한 이유다. 기록물 보존업무는 원본 기록물을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물리적 보존을 의미한다. 손상이나 열화로부터 기록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나중에 일어날 기록물의 훼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 예방적 보존이라면, 이미 발생한 훼손을 처리하는 사후적 보존은 '복원'을 목적으로 한 보수작업이다.

종이기록물은 훼손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복원 방법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종이가 지나치게 건조화돼 부스러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미세한 수분으로 이완시켜 처리하고, 오염물질이 있으면 흡입기나 브러쉬 등으로 제거하는 식이다.

한편으로 종이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났을 때는 접착제 등을 이용해 수작업으로 메우거나 '리프캐스팅Leaf Casting' 방법으로 복원한다. 리프캐스터Leaf Caster는 종이기록물을 복원하는 대표적인 장비로, 이를 활용해 손상된 종이를 물에 담가 섬유용액을 부어 종이결실을 메우며 복원할 수 있다. 해충이 갉아먹어 구멍이 났거나 찢어지는 등 종이기록이 물리적으로 훼손되었을 때 원본지의 형상을 복구하는 방법으로 리프캐스터를 사용한다.

종이 만드는 원리에 착안한 복원 장비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리프캐스팅은 서양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서양의 종이, 즉 양지洋紙에 적용한 사례가 대체로 많다. 국내에서는 2003년 국가기록원이 리프캐스터를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기록원도 2019년 개원하면서 도입했다.

리프캐스팅은 종이를 만드는 원리에 착안한 복원방법이다. 종이는 주원료인 펄프 등의 섬유를 물에 풀어지게 한 후 탈수와 건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리프캐스팅은 같은 방식으로 물에 녹은 섬유용액을, 물에 잠겨있는 손상된 종이의 결실 부위에 부어 새로운 종이를 만들어 메우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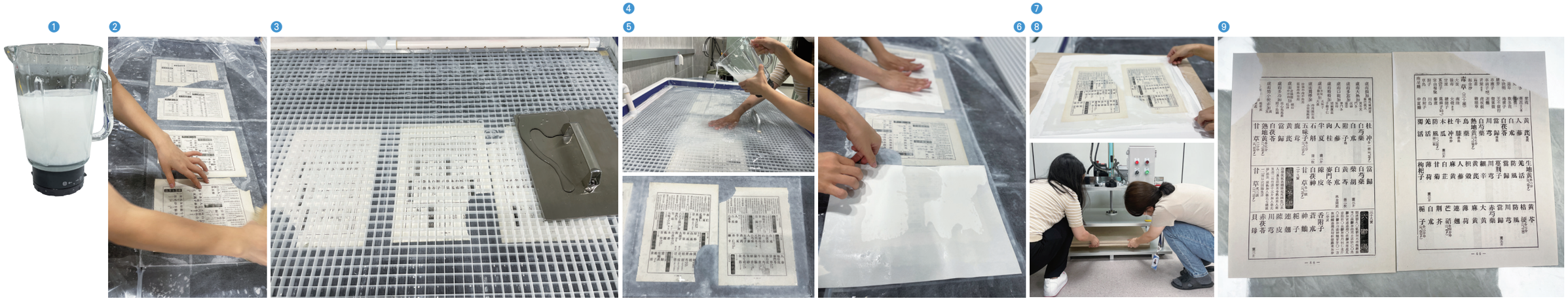
현재 사용되는 리프캐스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서울기록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프캐스터는 아래에서 물을 빨아들여 결실부에 섬유가 들어가게 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 등 서양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채질을 하듯 양쪽으로 흔들면서 섬유를 안착시키는 '뜨기질' 방식의 리프캐스터도 있다. 전통적인 종이 제조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보통 일본에서 사용된다.

리프캐스터 종이 복원 과정 한 걸음 앞으로

리프캐스팅은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낯설고, 이해도 쉽지 않다. 종이를 물에 완전히 담근 상태에서 복원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종이를 물에 넣어도 괜찮을지, 오히려 더 훼손되지 않을지 걱정과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서울기록원에서 복원업무를 담당하는 이예원 주무관, 복원 전문가 정다영 실무관과 4단계의 리프캐스터 시연 과정을 함께 했다.

01 복원 대상 선택하기_ 리프캐스팅은 종이를 물에 담가 복원하는 방법이다. 단, 물에 담가도 훼손되지 않을 재질의 종이에, 물에도 번지지 않는 필기매체를 사용한 종이기록이어야만 리프캐스팅으로 복원할 수 있다. 때문에 복원이 필요한 기록물 중 가치와 훼손 정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시급성을 요하는 종이기록물을 먼저 선정한다. 복원이 결정된 종이기록물은 다시 기록물의 재질과 필기매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리프캐스팅 방식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02 섬유용액 제작_ 복원 대상 종이기록물(원본지)이 정해지면 재질에 맞는 섬유를 선택하고 결실 부위를 계산해 복원



1 섬유용액 준비 2 리프캐스터 원본지 안착 3 원본지 물에 충분히 담그기(누름틀 활용) 4 물에 잠긴 원본지에 섬유용액 붓기 5 원본지 결실 부위에 섬유용액이 결합되어가는 모습 6 흡수지로 탈수하는 장면 7 탈수된 원본지를 건조기로 옮기는 과정 8 원본지를 흡수지 사이에 두고 건조기에서 압축하여 건조하는 모습 9 건조가 완료되어 재단한 최종 복원 모습

에 필요한 섬유의 양을 정한다. 그 다음으로 섬유를 물에 넣어서 믹서로 갈아 리프캐스터용 섬유용액을 만든다. 섬유용액을 만드는 고해기라는 기계가 있지만, 결실 정도와 원본지에 따라 필요한 종이 섬유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정용 믹서기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핵심은 원본지와 같거나 비슷한 종이의 섬유를 딱 필요한 만큼만 계산해 섬유용액을 만드는 일인데, 종이의 밀도나 평량을 정확히 계산해 지나치게 두껍거나 얇게 메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밀함이 요구된다.

03 리프캐스팅_ 본격적인 복원은 리프캐스터로 이뤄진다. 리프캐스터에 4~5cm정도의 물을 채우고 테이블 위에 보강지(여기에서는 산모아지Sanmore紙를 사용했다)를 먼저 두고, 그 위에 브러쉬를 이용해 반듯하게 원본지를 펼쳐놓는다. 원본지가 놓인 곳 외에는 비닐을 둘러 섬유용액이 원본지로 모일 수 있도록 돕는다. 그 후 결실 부위를 중심으로 섬유용액을 붓는다. 테이블에 놓인 원본지 위에서 덮는 격자무늬의 판은 결실 부위를 계산해 필요한 섬유용액을 계산하는 데도 쓰인다.

04 탈수와 건조_ 이어 섬유용액이 결실 부위로 모이도록 한 후 진공 흡입하여 리프캐스터 하단부로 물을 내보낸다. 기록물 표면에 남은 물기는 흡수지로 눌러 제거하는데 흡수지를 사용하기 전에 달라붙지 않는 재질의 화학지를 먼저 덧대 흡수지와 원본지 사이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한다. 충분히 탈수가 되면, 보강지를 들어 원본지를 건조기로 옮긴다. 위아래 흡수지 사이에 원본지를 넣고 압착기로 눌러주는데, 이때 건조상태를 확인해가면서 흡수지를 교체해준다. 건조가 완료되면 원본지 크기에 맞춰 재단한 후 제책 또는 제본하여 중성 보존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2021년 복원한 '방화지구 도시계획 결정 지적승인'

리프캐스터 복원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장을 처리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다량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종이의 재질과 필기매체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도 있다. 서울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30년 이상된 종이기록물 상당수가 일부 혹은 전체가 수기로 작성돼 있어 리프캐스터 사용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수작업으로 복원을 진행하고, 보조수단으로 리프캐스터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리프캐스터의 복원 효과는 어떠할까? 리프캐스터를 활용한 복원 정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록물은 2021년 복원한 '방화지구 도시계획 결정 지적승인'이다. 도시계획 등 토지 관련 기록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열람하는 것이어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복원되는 추세다. '방화지구 도시계획 결정 지적승인'은 해독에는 문제가 없으나 종이에 구멍이 나서 물리적으로 훼손된 상태였으며 필기매체가 인쇄매체였고, 종이 재질도 적합해 리프캐스팅을 진행했다. 실제로 시연 과정의 복원 전후를 살펴보면 위쪽에 나 있던 구멍이 메워진 것을 볼 수 있다. 원본지와 같거나 비슷한 섬유구조를 가진 섬유를 이용하고 해당 섬유에 대한 염색 등의 과정을 거쳐 원본지에 가까워졌다.

종이기록물 복원, 더디지만 계속 가야할 길

서울기록원 소장기록 중 복원이 필요한 기록물은 약 30만 건에 이른다. 내부 검토를 통해 역사적 가치가 높으면서도 상태가 좋지 않은 기록물 위주로 매년 복원할 기록을 정한다. 내부 전문인력과 외부업체를 통해 복원을 진행하는데, 종이기록물은 매년 A4용지 기준 1,500매 가량 복원이 이뤄지고 있다. 매년 몇 만 건씩 서울기록원으로 기록물이 계속 이관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복원해야 할 기록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시급성을 다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종이기록은 복원이 더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제작 당시의 환경이나 섬유의 질이 좋지 않아 산성화에 쉽게 노출돼 훼손된 경우가 많다. 이 기록들을 기록원에 보관하고 전시나 열람 등에 활용하려면 종이기록물 복원은 꾸준히 이뤄져야 할 작업이다. 때문에 적은 시간으로 다량의 복원이 가능한 리프캐스터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종이기록물 복원에 빼놓을 수 없는 방식이자 장비이다.

먹으로 쓴 한지는 리프캐스터 사용할 수 있을까?

리프캐스터는 물을 이용해 종이를 복원하기에 수용성 필기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한지에 붓으로 쓴 종이기록은 리프캐스터 사용이 가능할까?

: 정답은 '사용할 수 있다'이다. 먹물이 사용된 한지는 복원이 가능하다. 한국 전통의 안료인 먹은 그을음(탄소)과 아교로 이뤄져있는데 탄소는 흡착성이 강해 먹을 갈아서 만든 먹물로 쓰인 종이기록은 물에서 쉽게 녹거나 번지지 않는다.

종이 복원의 원칙은 이전으로 쉽게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

: 종이기록 수리나 복원의 목표가 감쪽같이 티나지 않게 마무리하는 일일 것 같지만, '특이하게도' 복원의 원칙은 복원 이전으로, 그러니까 훼손된 상태로 쉽게 되돌릴 수 있도록 복원하는 것이다. 이를 가역성Reversibility, 可逆性이라고 한다. 수작업으로 수리하는 경우에도 가역성이 있는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고, 리프캐스팅도 원본지에서 복원지가 구별돼서 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현재의 복원기술이나 접착제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고, 복원이 잘못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향후 더 발전한 방법을 활용해 복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둔 셈이다. 리프캐스팅은 원본지의 섬유에 새로운 섬유를 얹어 결합시킨 방식이기 때문에 가역성에 문제가 없다.





아픈 기록물을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까지!





서울기록원의 '중요기록물 복원처리 사업'은 시급성, 중요도 등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대상 기록물의 우선순위를 가린다.

서울기록원 4층에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기록물들이 새로 태어나는 곳이 있다. 기록보존처리 및 복원실이다. 서울기록원의 '중요기록물 복원처리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 기준과 과정은 비교적 명쾌하다. 복원처리의 시급성, 기록물의 중요도 등에 따라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복원처리 대상 기록물의 우선순위를 가린다.

그후 기록물 각각의 상태를 검사해 훼손 정도가 심하고 손상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기록물들을 C등급, B등급, A등급으로 나눈다. A등급 기록물은 리프캐스터를 사용한 복원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손상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비교적 '건강한' 기록물이지만, C등급 기록물은 건식으로만 세척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그야말로 '많이 아픈' 기록물이다. 이에 따라 보존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필요가 높은 C등급 기록물부터 먼저 처리에 들어간다. 그리고 복원 전 과정은 서울기록원에 상주하는 기록물 복원처리 전문인력이 전담한다.

사료적 가치 높은 기록물은 영인본으로도 제작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공원계획도〉(1952)(이하 〈공원계획도〉), 〈가로망도〉(1952)를 비롯하여 지난 〈아카이브 서울 vol.3〉을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지하철1호선 평면도〉(1974) 등 총 1,591매의 기록물이 복원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는 〈용도지역변경고시〉(1967), 〈방화지구도시계획결정〉(1962)을 포함한 총 1,530매의 기록물에 대한 복원처리가 이루어졌다. 2022년에는 〈서울도시계획공원변경〉(1958), 〈여의도공유면매립실시인가(한강건설사업소)〉(1968) 등 총 1,328매의 기록물이 복원처리 대상 기록물로 선정되었다.

한편 특히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기록물은 영인본으로도 제작된다. 영인본이란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기록물 원본을 복제한 인쇄물로, 서울기록원은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영인본을 제작하고 있다. 원본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최대한 원본과 가깝도록 편집 및 보정 작업이 최소 3회 이상 진행되는데, 영인본이 확정되면 그 출력본을 아크릴 액자 판넬로 고정해 보관한다.

건강하고 명랑한 수도 서울 건설을 구상한 '가로망도'

2021년에는 2020년 복원처리를 마친 〈공원계획도〉를 영인본으로 제작하는 과업이 이루어졌다. 〈공원계획도〉는 〈광장계획선에관한건〉(건설국 토목과, 1953.1.6.)의 첨부 도면으로, 1952년 내무부고시 제23호(1952.3.25.)에 의해 지정된 서울시내 광장 32개소에 대해 광장별로 상세지적을 표기한 도면 32매와 함께 첨부된 축척 15,000:1의 서울시 전도이다. 〈서울도시계획 가로변경·토지구획정리지구 추가 및 계획지역·변경〉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내무부고시 제23호는 전후 재해 복구를 위해 세워진 도시계획이다. 내무부고시 제23호가 발표되기 한 해 전 작성된 〈도시계획가로망및광장변경결정품신에관한건〉(1951.12.13.)은 내무부고시 제23호의 수립 취지를 잘 보여준다.

서울의 미래 도로와 광장 변화 보여주는 '공원계획도'

내무부고시 제23호는 6.25 전쟁으로 파괴된 서울을 대규모의 새로운 도시계획을 통해 재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에 6개의 기존 계획가로計劃街路를 없애고 39개의 계획가로를 신설하며, 18개의 기존 계획가로를 확장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내무부고시 제23호에 따라 당시 서울의 도로와 광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물이 바로 〈공원계획도〉이다. 가로 166.8cm, 세로 148.8cm에 달하는 대형 도면인 〈공원계획도〉에는 서울시내 도로 및 광장 전체가 표기되어 있다. 아울러 1936년의 도시계획구역 및 1949년 확장된 서울시 구역 경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획공원, 기설공원, 존치보안림 정보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 또한 눈길을 끈다. 당시 서울시가 설계하고 있던 서울의 미래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원들, 그리고 종로와 을지로를 비롯한 격자형태의 상세한 도로를 바로 이 〈공원계획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년에는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2-1 0222〉를 포함한 4건을 영인본으로 제작하는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1970년~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 기록물들은 1970년 구역 지정 논의가 급진전되며 국방부 등과 조율한 사항과 1971년 최초 지정고시, 1972년 추가 지정고시를 통해 변화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 높은 역사적, 기록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서울시 기록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울기록원의 노력은 항상 진행형이다.

"당시의 도시계획가로망은 단기 4269년 12월 26일자 제722호 고시와 단기 4272년 9월 18일자 제757호 고시로 2차에 걸쳐 222노선 연장 318,440m가 결정되어 그 후其後 일부는 공사실시를 하였으나 대부분이 실시를 보지 못하고 있는바 원래 계획 자체가 고식적인 소규모로서 대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도계획으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어 현재 해당 방면適間斯界의 권위를 망라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조직하고 연구를 거듭하여 오던 중 이번今般 불의의 6.25사변으로 인하여 시가지의 대부분의 파괴 또는 소실되여 참상을 이르고 있으나 도시계획 실천면으로 보아 전화위복인 천재일우의 호기로 사료되며 이 기회此際에 획기적인 대규모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이상적인 수도 서울을 건설함이 가장 현명책으로 사료하와 별지와 같如히 우선이 되는爲先 가로망변경안을 품신하오니 전의詮議하시와 결정고시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 〈도시계획가로망및광장변경결정품신에관한건〉, 건설국 토목과, 1951.12.13.

역대 서울시장 기록으로 서울의 변화 읽어볼까



1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양택식 시장. 1973년

2
타임지 인터뷰하는 염보현 시장

1

서울시는 주요시정을 어떻게 기록화하고 있을까? 또 주요 시정 방향을 결정하고 집행과정을 챙기는 수장인 서울특별시장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기록이 수집되고, 어떻게 관리될까? 무릇 시정은 사람의 일 중에서도 특히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인물'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서울기록원은 <주요시정 인물기록 조사·연구 사업>(이하 인물기록 사업)을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

2



서울의 인물기록을 구상하다

'인물기록 사업'에 대한 첫 구상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에는 서울시장 관련 기록보다는 정책을 실행하는 서울시 공무원, 주요 결정과정에서 역할을 한 자문위원과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하는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는 문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서울의 정책이 결정되고 실현되는 전 과정의 '증거적 가치'를 담은 기록 수집에 비중을 둔 것이다.

이후 몇 번의 수정과 검토를 거쳐 작성된 '역대 서울시장 관련 기록물 수집 계획(안)'에 이르면 이 사업의 초점이 시장의 공적 기록을 보완하는 데 맞추어지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인 시정기록과 함께 민간에 소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잠재적인 시장 관련 기록물을 서로 연결하여 시장기록물을 일원적으로 정리, 시정 활동의 공백을 보완한다는 계획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시장 관련 기록물을 서울기록원이 기증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기증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장 관련 기록물을 기증받거나 혹은 주요 인사와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기증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후로 여러 번의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서울시 주요 정책과 관련된 인물들을 기록화한다는 현재 사업의 추진 방향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인물기록 통해 서울시정기록 관리 고도화

현재 서울기록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물기록 사업'은 역대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과 그와 관련된 기록을 파악함으로써 시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 기록물 유형에 따라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장기록물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점도 또 하나의 주요 사업목적이다. 서울시의 시장기록물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문서와 사진, 연설문, 동영상, 행정박물 등 다양한 유형의 시장기록물이 서울기록원 외에 서울시 시장실, 정보공개정책과, 서울역사박물관 등 여러 부서(기관)에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를 서울기록원이 '인물기록 사업'을 통해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시장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별 시정활동의 기록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선 첫 단계로 시장별로 주요 정보가 담긴 파일이 작성된다. 여기에는 역대 시장의 재임 전 활동, 저서 등 기본적인 인물 정보와 함께 재임시 주요하게 추진되었던 정책 등이 담기게 된다. 이와 병행해 시장별 주요 정책 및 사건 중심의 상세 연표도 함께 작성된다. 그다음 단계로 역대 시장별 핵심 정책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는 서울시 기록관리시스템(RMS), 서울기록원 디지털아카이브(SDA) 등에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는 자서전, 회고록 등 개인 저서 등을 분석해 민간에 소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시정기록물 조사가 추진된다. 또 시장별 시정활동기록과 함께 주요 시정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기록화도 진행된다. 앞선 작업을 통해 선정된 핵심 정책과 관련된 인물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인물과 도시의 발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법

이처럼 인물과 도시의 발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기반이 되는 '인물기록 사업' 진행 과정을 제22대와 제31대 서울시장을 역임한 고건 전 시장의 사례로 예를 들어 보자. 1988년 12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고 전 시장의 첫 번째 임기 주요 정책으로는 '서울 교통종합대책', '쓰레기대책', '수방대책' 등이 선정되었다. 더불어 각각의 정책과 관련된 공문서, 인터뷰, 사진, 연설문 등 다양한 기록물이 수집되었다. '서울 교통종합대책'의 경우 당시 고 전 시장이 서울 내 극심한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교통방송(TBS) 창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교통방송설립관계철』(생산: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 1988년)을 수집하였고 '쓰레기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쓰레기 문제 해결 노력을 보여주는 연설문과 인터뷰 등이 주요 기록물로 목록화되었다.

199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인 두 번째 임기에서는 '2022 월드컵 준비'와 관련해 『서울월드컵경기장 관람객 등 서비스시설 설치 현황 통보』(생산: 문화국 체육청소년과, 2000년)와 같은 기록물철 및 2022월드컵 홍보 포스터·리플릿 등 행정박물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주요 정책이었던 '교통 만들기'에서는 제2기 서울시 지하철(5·6·7·8호선)과 관련된 기록물철을 비롯해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공동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시민토론회 연설문 등이 대표적인 기록물로 조사되었다.

세계인이 찾고, 즐기는 매력적인 도시 서울로 성장하기까지 시민과 함께 했던 역대 시장들의 '인물기록 사업'은 꾸준히 추진돼 향후 시민들에게 그 성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시간을 복원하는 과학자, 작품을 치료하는 의사

복원가,

김겸미술보존연구소 대표

김겸

시간을 거슬러 전하고 싶은 혹은 전해져야 할 이야기들이 있다. 삶 그대로 찬란했던 순간과 잊지 말아야할 아픔의 시간들, 현재를 만들어온 과거의 삶들과 그 시대의 모습. 시간을 거슬러 변하지 않는 가치도 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아름다움에서 느껴지는 감격, 공감이 전하는 감동과 시대를 초월해 서로의 마음이 맞닿는 전율.

모든 것은 소멸을 전제로 태어난다지만 짧은 생보다 길게 남겨져 생과 생을 이어 이야기를 전하는 시공이, 기억이 있다. 그리고 작가에게서 태어난 작품은 시대를 통과하며 '보존'되고 '복원'되면서 생을 이어간다.

시대를 이어 전해지는 작품과 유물에는 시대별로 새로운 이야기가 쓰인다. 작품을 생각했던 오랜 마음, 남겨두고 싶었던 간절함, 작품을 다루었던 방식은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와 역사가 되어 유물과 작품에 서사를 더한다.

여기에 다리를 놓는 이가 있다. 예술과 역사의 뒤편에서 '남겨두고 싶은 마음'으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사람, 보존복원가이다.

국내 독보적인 보존복원가로 꼽히며 김겸미술보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겸 대표를 만났다. <시간을 복원하는 남자>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통해 복원가의 삶, 보존과 복원에 대해 대중에 알린 그는 현재도 미술품과 근현대 유물을 전문으로 하는 복원가로, 최근에는 복원을 널리 알리고 후학을 기르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미술품, 유물의 손상 막고 치료하는 보존복원가

'복원가'는 낯설다. 20년 전 개봉한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고독하게 연인을 그리며 미술품을 복원하며 잃어버린 시간과 관계를 복원하고자 했던 준세이 정도가 떠오른다. 김겸 대표는 보존복원가를 '의술'을 실천해 생명을 연장하고 기운을 북돋는 '의사'에 빗대 설명한다.

"유물이나 기록물, 미술품처럼 오랫동안 보존되어 전해져야 할 가치 있는 것들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복원가를 의사에 많이 비유합니다. 복원 과정이나 복원가가 되는 교육과정 등의 시스템도 병원과 닮았는데요. 병원에 예방의학부터 가정의학, 응급의학 등이 있듯이 보존과 복원도 그런 자연스럽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주기 위한 관리이자 치료입니다."







'복원'에는 미술품부터 문화재나 기록물까지 그 대상에 따라, 또 그의 비유처럼 시기와 치료방법에 따라 오랜 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복원부터 심한 손상에 따른 응급수술 같은 복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김 대표는 입체미술작품을 중심으로 미술작품과 근현대 유물 중 손상이 심한 작품을 '그 작품이 건강하게 잘 살아왔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며' 수술하듯 복원한다.

과학자와 장인

의술처럼 복원의 과정도 매우 과학적이며 기술적이다. 김 대표는 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치는데 화학은 복원을 위한 기초지식에 해당한다.

"복원은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석기를 통해 상태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종합해 복원의 여부와 정도를 판단합니다. 복원하고자 하는 대상의 소재도 알아야 하지만 빛이든 물이든 손상의 원인과 영향에 따라 손상되는 과정과 그에 따른 분자구조의 변형까지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적외선을 이용한 분석기나 레이저광을 활용한 '라만분석' 등으로 물질의 분자구조와 손상의 내용을 파악하면 그에 따라서 복원에 쓰이는 약물과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화학은 필수입니다."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 이야기

대표적으로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 복원은 폴리우레탄이라는 고분자 수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가능한 작업이었다. 김숨 작가의 소설로도 남겨진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 복원과정을 보면 '복원'은 복원하는 사람의 마음과 과학적 지식과 기술, 시간이 함께 만들어내는 복원가의 또 다른 예술작품과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복원과정에 따라 복원가는 때론 과학자가 되었다가 수사관이 되기도 하고 예술가가 되기도 한다.

김 대표가 그 운동화를 처음 봤을 때는 밑창 뒷굽 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모래처럼 바스러져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그는 가장 먼저 적외선 분석 등을 통해 손상된 부분의 소재와 분자구조를 파악했다. 이한열 열사 운동화는 밑창이 폴리우레탄, 신발가죽은 합성피혁이었는데 폴리우레탄인지 생고무인지 등에 따라서 사용해야 할 접착제와 도포제가 달라진다. 재질에 맞지 않는 약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소재를 모두 녹여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소재를 파악한 후에는 본래의 형상에 맞게 손상부위를 메워야 하는데, 바스러져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운동화 밑창의 무늬패턴을 알기 위해서 잠시 수사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김 대표는 비슷한 시기 같은 회사에서 생산된 '타이거 운동화'를 찾기 위해 수소문하고 다른 운동화의 패턴을 참조하며 이한열 열사 운동화 밑창의 패턴을 찾아갔다. 그 후에는 예술가나 장인처럼 떨어져 나간 조각들을 하나하나 패턴에 맞춰 운동화 밑창에 붙이고 가루가 되어버린 부분들을 복원해 메우는 섬세한 과정들이 이어졌다.

복원에서 '가역성'의 문제

이한열 열사 운동화 복원은 대중에게 그를 각인시킨 대표작품이지만, 한편으로는 복원에 있어 중요한 이슈를 불거지게 하기도 했다. 복원의 주요 원칙으로 꼽히는 가역성可逆性에 대한 문제다. 가역성은 지금의 방법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복원 이전의 상태로 복구 가능하도록, 즉 더 좋은 방법이 발견됐을 때 다시 그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지침'에서 가역성 있는 접착제 등을 사용해 가역성을 갖춰 복원하도록 제시할 만큼 복원에서 가역성은 주요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한열 열사 운동화를 가역적이지 않게 복원하고 이를 학회에 발표했다. 이 문제는 복원의 목적과 방향에 맞닿아 있다.

"원칙은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춰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는 열과 자외선에 의해 모두 파괴되어 가루가 된 것들을 붙여서 복원했는데, 이를 복원 이전의 상태로 만든다는 건 다시 가루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 운동화가 이렇게까지 손상이 됐던 건 운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보존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가루로 다시 돌아갈 여지를 만들면서 복원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과연 옳은지를 학회에서 물었고 많은 분들이 비가역적으로 복원된 것에 동의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복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에서 보고 싶었던 것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해 세월보다 더 많이 손상된 운동화가 아니라, 그가 마지막까지 신고 달렸던 운동화, 시대를 민주주의 한복판으로 이끌어냈던 그 운동화가 아니었을까.

비가역적으로 복원된 그 운동화처럼, 복원하려는 그 목적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진다. 외형적으로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복원이 있고,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치는 복원도 있다. 미술품 복원은 작품의 미적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말 '감쪽같이' 복원하는 게 목표가 된다. 문화재 복원은 이보다 복잡하다.

"출토된 유물의 재료와 제조과정이 후손들에게 남겨져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 유물이 더 손상되지 않도록 하되 접착제 등 무엇을 더 첨가하면 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박물관에 가보면 깨어진 도편들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조선 도자

기의 미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게 목적인 매병이 있다면, 떨어져 없어진 것도 감쪽같이 만들어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미술품이든 유물이든 복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복원가도 함께한다. 복원기술이 그 목적만큼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복원 여부부터 복원가에 따라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복원의 과정은 기록된다.

"복원도 과정이에요. 대상에게 벌어진 어떤 이벤트라도 그 대상에 어떤 식으로든 흔적을 남기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을 차후에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다 기록합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 어떤 방식으로 복원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기록하는 것은 향후 복원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복원 대상에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기억을 입힌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도 이야기는 계속 쓰이고 있는 것이죠."

작품의 원형과 작가의 의도, 그 사이 어디쯤

김겸 대표의 복원작업 목록에는 세계적인 비디오아트 예술가 백남준의 작품도 있다. 백남준 작품의 복원은 '복원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근현대 미술작품은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하는데, 비디오아트는 모니터와 컴퓨터, 광매체, 자기매체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한다. 이런 기기들의 수명은 전통의 종이매체보다 훨씬 짧다. 백남준 작품의 모니터들도 작동을 멈추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작가가 활동하던 시기의 둥근 브라운관이 이미 평면 브라운관, LCD모니터 등으로 대체되어 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전체적인 구조와 외향, 브라운관의 모양, 그 브라운에서 나오는 영상들로 백남준 작품이 구성된다고 볼 때 브라운관 교체는 어려운 문제다.

그렇다면 브라운관의 교체는 '작가의 의도'를 훼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관련해 김 대표는 "작가의 의도와 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 및 사회 안에서의 해석가능성 등이 모두 검토된 후에야 복원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 대표는 백남준을 '자신의 작품을 악보로 전해지는 음악처럼' 여겼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백남준 작품의 복원에서 미디어나 부품의 교체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다. 다만, 'TV로봇'이나 'TV부처'처럼 모니터가 영상의 재생수단을 넘어 존재감이 높은 오브제라면 판단은 또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 한국은 복원 전문가가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오랜 시간 복원을 경험함으로써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공이 큰 편이죠. 저희 연구소에 같이하는 젊은 연구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복원에 대해 많이 알리고 배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 복원의 미래도 키우다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와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 세계적인 비디오아트 예술가 백남준의 작품, 가루로 부서진 현대미술작품 등 김 대표를 거쳐간 작품과 유물들을 나열하다 보면 그가 되살린 건 하나하나의 작품에 그치지 않는다. 한 시대와 시대정신, 작가의 삶과 관람자들의 추억이 그의 손을 거치면서 다시 숨을 쉰다. 그런 그에게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까?

"한국은 복원 전문가가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오랜 시간 복원을 경험함으로써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공이 큰 편이죠. 저희 연구소에 같이하는 젊은 연구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복원에 대해 많이 알리고 배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싶습니다."

복원가가 된다는 것은 오랜 경험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다. 흔히 비유되는 '장인이 직접 한땀한땀 수놓아' 명품을 만들 듯 이뤄지는 것이 복원이고, 복원가는 풍부한 사례와 소재들에 대한 복원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길을 같이 걸어갈 많은 복원가들을 보고 싶다. 복원가가 작품에 쓰게 될 새로운 이야기, 불어넣을 새로운 생명이 한국의 예술과 역사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만들어줄 테니 말이다. 유물이 담고 있는 많은 이들의 삶과, 작품을 보며 느꼈던 기쁨과 슬픔, 추억을 조금 더 오래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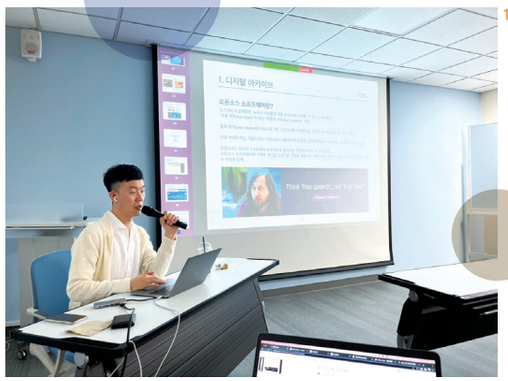


개인 기록관도, 공유 아카이브도 OK 기록으로 디지털아카이브 만들기

서울기록원은 서울시 기록을 관리하는 일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의 문화기관으로서 선도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기록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오픈소스로 아카이브 만들기 사업'은 이러한 지향을 반영해 기획, 추진된 사업이다.

'오픈소스로 아카이브 만들기 사업(이하 오픈소스 아카데미)'은 아카이브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들이 오픈소스로 직접 자기(혹은 단체)의 디지털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대시민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의 책임수행을 맡은 아카이브랩은 오픈소스 아카데미를 일방적인 교육과 강의 형태가 아니라 멘토링 방식으로 꾸렸다. 참여한 시민들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유연하게 반영하고, 각 아카이브의 개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디지털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함이다.

올해 2년차에 접어든 오픈소스 아카데미에는 개인과 민간단체를 합해 10곳이 참여해 디지털아카이브 만들기에 도전했다. 시민들은 과연 어떤 아카이브를 만들고 싶었을까? 기록학 대학원생을 '멘토'로 선정해 아카이브에 생소한 참가자들을 돕도록 한 오픈소스 아카데미의 내용과 과정, 의의를 따라가 보았다.



1
2022년 5월에 열린 제2회 '오픈소스로 아카이브 만들기' 사업에서 아카이브랩 안대진 대표가 강의를 하고 있다.



2
오픈소스 아카데미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참가자와 멘토가 1:1로 매칭되어 개별적인 요구사항들을 긴밀하게 논의하며 디지털아카이브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기록학 전공자들로 구성된 멘토들(왼쪽부터 망내, 찐, 헬렌, 웅박, 조교).



3
2021년 오픈소스 아카데미에서 만들어진 '외할아버지아카이브-버려진 낟알을 찾아서' (https://galmistory.omeka.net)

외할아버지 유품부터 사라진 공간의 흔적까지…
사연 많은 아카이브를 만나다

지난해 처음 진행된 오픈소스 아카데미에는 기관이나 단체 담당자의 참여가 높았다. 때문에 '서비스' 방법에 대한 욕구가 좀 더 많았다. 벽돌공장을 아트하우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아카이빙하는 '연천아트하우스 아카이브', 외할아버지의 기록과 자료, 작품을 아카이빙한 '가족 아카이브', 석유비축기지를 문화비축기지로 바꾼 뒤 이뤄진 사업들을 아카이빙한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 아카이브', 수유동 재래시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유동 일대의 재래시간 관련 기록을 아카이빙한 '수유동 재래시장프로젝트 아카이브', 우란문화재단의 활동사항들을 아카이빙하기 위한 '우란문화재단 아카이브' 등이다.

이 가운데 '외할아버지 아카이브'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외할아버지가 그리고 소장해온 2,000점 안팎의 인물화를 아카이브하고자 한 손녀는 본격적으로 기록을 살피다 한 개인의 기록에 머물기에는 중요한 기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멘토 '웅박'은 "외할아버지가 모아 놓은 기록들을 살펴보니 옛날부터 전해 오는 대구 지역 설화나 말씨들을 모아둔 자료들이 가득했다"면서 이에 "주제를 조금 확장해 대구의 지역아카이브, 향토아카이브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 그 방향으로 기획을 했다"고 인상적인 작업을 소개했다.

기록은 그 속성상 생산되는 시점부터 자본과 권력이 함께 작동한다. 위대한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은 크게 애쓰지 않아도 기사로, 책으로, 영화로, 소문으로 그의 기록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이다. 반면 '그저' 한 개인의 역사와 서사는 누가 어떻게 기록하고 남기고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손녀가 진행한 외할아버지의 아카이브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나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 기록을 유산처럼 잘 전수받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라면 도도한 시대에서는 아무도 아닌 한 개인이, 누군가의 전부이고 온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남기는 '묘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022년에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6주 동안 오픈소스 아카데미가 진행됐다. 올해는 개인 단위 참여자가 늘면서 다양한 기대가 담긴 디지털아카이브가 탄생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록, 즉 한 개인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옛길이나 인물, 사건, 공간 등을 현지 조사하면서 모

으고 생산한 사진과 영상 등을 온라인에서 전시하는 '연행노정아카이브', 책이나 영화, 교육, 체험활동, 공부, 취미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획득되는 여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생활 아카이브', 우리 고전 '춘향전'에 꽂혀서 춘향전을 모티프로 삼은 영화와 관련 기록을 모아서 하나의 텍스트가 어떻게 각기 다른 옷을 입고 관객과 만나왔는지를 살펴보는 '아카이브 춘향춘향', 현재 일본에 남은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흔적과 그 이야기들을 모아 온라인에 담아보는 '재일조선인 아카이브', 건축을 연구하는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문서적, 자료 4,600여 권과 도면, 지도 영인본 등 기증 자료를 주제별 컬렉션으로 관리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지음건축자료실 아카이브'들이다.

나의 아카이브를 위한 핵심 기술 '오픈소스'

이토록 다양하고 재미있는 아카이브를 스스로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오픈소스'이다. 오픈소스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복제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으며,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오픈'이라는 말에는 '공짜로 쓴다'라는 의미보다는 '자유롭게 쓴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셈이다. 오픈소스로 디지털아카이브를 만드는 일은 대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기술이거나 가격이 비싸 장벽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2022년 오픈소스 아카데미의 멘토 중 한 사람인 '망내'가 좀 더 쉽게 굵직한 골격을 설명했다.

"오픈소스로 아카이브 만들기 과정에서 활용했던 가장 주요한 오픈소스는 오메카Omeka입니다. 오메카는 온라인에서 기록을 전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박물관, 미술관, 기록관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록전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관리의 기능도 결코 다른 아카이브 시스템에 비해 부족하지 않거든요."

물론 오픈소스라고 해서 모두가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실행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가이드 없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이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발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무료로, 혹은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매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사진 전시 툴, 지도 기반 스토리텔링 툴 등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 대표적인 오픈소스인 오메카 외에도 기록물의 맥락을 연결해주고 효과적으로 시각화시키는 오픈소스들은 다양하다. 오픈소스 아카데미에서는 각 참가자들의 필요에 따라 기록을 연대기별로 보여줄 수 있는 수토리Sutory, 크로노플로 타임라인ChronofloTimeline, 타임라인 제이에스TimelineJS 같은 타임라인 툴, 사진기록을 정돈해서 보여줄 수 있는 포토맷Fotomat, DB 자체나 표로 기록분석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에어테이블Airtable, 위치 정보와 기록을 연결해 보여줄 수 있는 큐레이트스케이프Curatescape 등의 오픈소스 도구 활용법을 경험해보았다.

서울기록원이 지속적으로 시민의 기록과 하려는 노력

오픈소스 아카데미는 시민의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해 기록으로 이 시대의 서울을 포착해 두겠다는 서울기록원의 바람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사업이다. 기록이라는 물고기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 손수 잡아올린 물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법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멘토 '망내'는 실제로 기록에 애정이 많지만 아카이브 구축 방법을 막막해하던 이들, 가지고 있는 귀한 기록들을 짊어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 쩔쩔 매던 사람들이 오픈소스 아카데미를 통해 저마다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콘텐츠들을 꾸려 가는 과정은 경이로웠다고 털어놓았다.

"프로그램 기간 중 인상 깊었던 건 참여자들이 아카이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목표가 확장되고, 성장했다는 점이에요. 개인 소장용 아카이브를 만들고자 했는데 어쩌다 보니 대중과 공유하기 위한 아카이브를 만드는 작업을 한 참가자도 있었고, 아카이브를 통해 단순히 가진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영리수단과 연계해 아카이브를 계속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상하신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디지털아카이브는 한 번 구축해 보는 경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온라인상에 구축된 아카이브를 지속해 가려면 서버 이용료 등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향상된 기술을 적용시켜야 하는 문제도 계속 발생한다. 그만큼 디지털아카이브는 구축 방법에 이어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만찮은 과제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디지털이 깊이 뿌리내린 일상, 더욱이 아카이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폭증하는 시대에 '오픈소스로 아카이브 만들기'는 작은 규모이지만 '욕구'를 실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2년 오픈소스로 아카이브 만들기 사업

01 연천아트하우스
주제: 연천아트하우스 공간 관련 기록
사용한 툴: Neatline, Omeka

02 외할아버지
주제: 외할아버지 작품 및 대구 지역 향토자료
사용한 툴: Omeka, TimelineJS

03 문화비축기지
주제: 문화비축기지 행사 및 활동기록
사용한 툴: Sutori

04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제: 수유동재래시장
사용한 툴: Curatescape

05 우란문화재단
주제: 전시 및 사진기록, 홍보자료
사용한 툴: Fotomat

06 신춘호
주제: 역사기록, 사진, 영상기록(연행노정)
사용한 툴: Curatescape

07 박정효(숲과나눔)
주제: 개인문화생활 기록(Omeka 학습)
사용한 툴: Omeka

08 김세연
주제: 춘향전을 원전으로 한 영화 기록
사용한 툴: Omeka, TimelineJS

09 송승현
주제: 재일조선인 관련 기록, 사진기록
사용한 툴: Fotomat, Omeka

10 최호진(지음건축연구소)
주제: 건축기록
사용한 툴: Omeka



오픈소스 아카데미는 시민의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해 기록으로 이 시대의 서울을 포착해 두겠다는 서울기록원의 바람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오픈소스로 아카이브 만들기 사업'에서 구축된 디지털아카이브

*외할아버지 아카이브 galmistory.omeka.net/
*문화비축기지 타임라인 www.chronoflotimeline.com/timeline/shared/5477/-/#vars!date=1977-07-21_04:54:24!
*연행노정 아카이브 docu8888.omeka.net/
*재일조선인 아카이브 3.85.169.130/
*아카이브 춘향춘향 13.125.76.203/
*지음건축자료실 아카이브 54.187.194.9/

먼지 앉은 우리의 추억, 쉽게 복구할 수 있어요

서울기록원, 내 손으로 하는 '생활수선' 프로그램 시범 운영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주인공의 딸이 할머니 집에서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오래된 일기장에는 사십 중반을 살아가고 있는 엄마의 20년도 훌쩍 넘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종이 기록은 대개 누렇게 색이 변해있거나 가장자리 부분이 바스라지고 접혀 있는 경우가 많다. 아쉽게도(?)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배경은 1990년대 후반인 까닭에 엄마의 일기장은 색이 바래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는 책이나 노트 등에 중성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누렇게 변한 기록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 접히거나 구겨지고, 어느 한 부분이 찢어진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소중하게 간직해 오던 아날로그 기록들이 이렇듯 손상되었을 때 원상복구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기록들은 보다 오래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기록원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아날로그 기록 복원 방법을 알려주는 '생활수선' 프로그램을 기록원 내부 직원을 시범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문가들이 특수한 도구를 이용하거나, 과학적 지식이 동원되어야 하는 어려운 복원기술이 아닌, 누구나 집에서도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비법들을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추억이 담긴 기록 좀 쉽게 보수할 수 없나요?

"서울기록원 열람실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기록물을 보면서, 다시 서가에 배치하기에는 애매한 손상이 있는 기록들을 간단하게 보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간단한 복원방법을 실습해 보고 궁금하신 점들을 함께 이야기할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셔서 생활수선 프로그램을 준비했지요. 대상은 열람실 직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직원들로 확대했고요."

'생활수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정다영 주무관의 말이다. 2022년 5월 10일, 서울기록원 4층 보존복원실에서 '생활수선'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생활수선은 구겨지거나 찢어진 기록물을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실습해 보고 집에서도 응용하여 개인 기록물을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집에서도 할 수 있다! 가뿐하게 기록 복원 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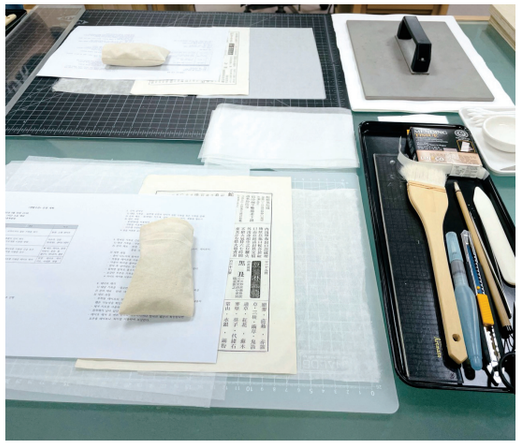
생활수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보존복원실'에는 기록을 보존하고 손상된 기록을 복원하기 위한 도구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핀셋, 여러 개의 붓, 비커, 물뿌리개, 면봉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구들도 있고, 소형 웨이트, 테이프 제거 키트 등과 같은 낯선 도구들도 눈에 띄었다. 책상도 그냥 책상이 아닌, 상판에 백라이트가 켜져서 찢어진 기록 등을 복원할 때 활용하는 복원 도구였다.

생활수선에서 다루게 되는 기록물 복원 처리 유형은 총 4가지로 '기록물 펴기', '건식 클리닝', '찢어진 기록물 긴급 처리', '테이프 제거'이다. 복원에 필요한 전문도구나 재료 없이도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실습해보고, 대체용품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1
핀셋, 여러 개의 붓, 물뿌리개, 면봉 등 기록물을 복원하기 위한 도구

2, 3
생활수선 프로그램에서 다루게 되는 기록물 복원 처리 유형은 '기록물 펴기', '건식 클리닝', '찢어진 기록물 긴급 처리', '테이프 제거' 등 총 4가지이다.

1



2



3



01. 구겨지거나 접힌 기록물 펴기

가장 흔하게 접하는 기록물 훼손 유형은 구겨지거나 접힌 기록물이다. 이럴 땐 구겨진 부분을 핀셋으로 펴고 웨이트를 이용하여 눌러서 펴준다. 구겨짐이나 접힘이 심할 때는 보다 고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물을 이용해 평탄화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이때 종이기록에 쓰인 글씨나 표시들이 물에 훼손될 가능성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면봉에 물을 묻혀서 글씨 부분에 살짝 대어 보면 번지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번짐이 없음을 확인했다면, 기록물 아래 킴테크실험실에서 용액을 쏟았거나 시료를 올려 놓을 때 사용하는 와이퍼를 깔고 붓에 물을 묻혀 접힌 부분을 펴준다. 그런 다음 다시 킴테크로 위를 덮고 웨이트로 눌러준다. 전체적으로 구김이 심한 종이기록의 경우, 블로팅페이퍼에다 분무기로 축축할 정도로 물을 뿌린 뒤, 기록물의 위아래를 덮고, 윗면에 화학지를 대고 무거운 동판으로 한 시간 이상 눌러 놓는다.

Tip. 가정에서 복원작업을 할 때에는 킴테크나 블로팅페이퍼흡수성이 좋은 보존용 종이로, 압착 건조 시 주로 사용한다를 대신해 물을 잘 빨아들이는 키친타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웨이트나 동판은 무거운 책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화학지는 생략해도 괜찮다.

02. 표면에 오염과 먼지가 심한 기록물의 건식 클리닝

자주 이용하지 않는 오래된 기록물은 먼지가 쌓이거나 오염이 되기도 한다. 기록물에 쌓인 먼지와 오염을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붓으로 기록물 앞뒤에 쌓인 먼지를 털어주는 건식 클리닝이다. 붓으로 하는 건식 클리닝은 실제로 기록원에서 기록물을 보존처리할 때에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기본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다음엔 지우개 가루를 이용하여 기록물 표면의 오염물을 세척해 주는 방법이 있다. 먼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강판에다 지우개를 문댄다. 지우개 가루가 생기면 기록물 위에 뿌리고는 손으로 살살 굴리며 부드럽게 기록 표면에 붙은 오염물을 제거한다.

오염도가 높을수록 지우개 가루가 까맣게 변한다고 한다. 이때에도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연필로 쓰인 기록물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하면 지우개 가루로 인해 기록 내용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03. 찢어진 기록물의 긴급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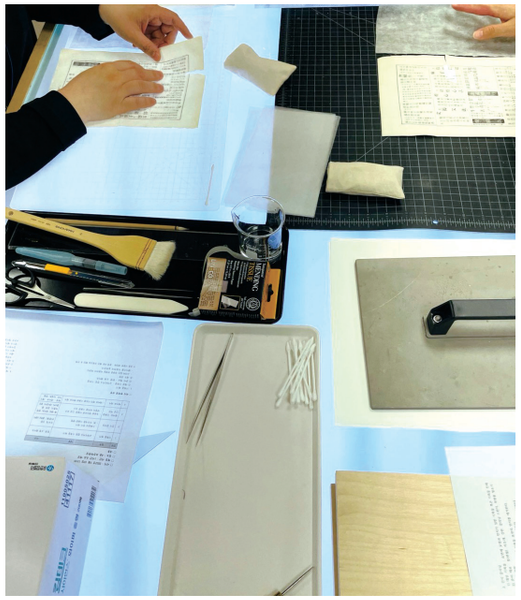
기록물 훼손 상태 중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찢어진 기록물을 볼 때가 아닌가 싶다. 찢어진 종이를 다시 붙일 수도 없고…. 내 마음도 덩달아 찢어지는 것 같다. 그런데 생활수선 프로그램에서 찢어진 종이가 감쪽같이 붙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기본적인 방법으로, 찢어진 부분의 층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 위에 보존처리용 풀인 소맥전분풀로 붙여준다. 종이 위에 남은 풀을 닦을 때는 레이온지를 사용하고, 풀로 붙인 면은 나무 헤라대나무 소도구로 낱장으로 해체하거나, 종이를 접는 등 다양한 작업에 사용한다로 눌러준다.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착물질이 중성이면서 산성화를 막아주는 복원용 테이프를 이용할 수 있다.

조금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는 닥종이 띠지를 풀로 접착하여 보강하는 것이다. 닥종이 띠지는 필요한 만큼 잘라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닥종이를 칼로 자르지 않는 것이다. 닥종이는 양지와 달리 결이 있기 때문이다. 닥종이를 자를 때는 자를 부분을 종이의 결에 나란하게 접고, 그 접은 선을 따라 붓으로 물을 묻힌 뒤, 나무 헤라 등으로 반복적으로 눌러준다. 그렇게 잘라 낸 닥종이를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여 찢어진 부분에 붙여주면 된다.

Tip. 소맥전분풀은 보존복원용 전분풀로 밀가루에서 전분, 즉 단백질을 제거하여 만든 것이다. 가정에서는 딱풀과 같은 일반 접착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레이온지는 매우 얇고 긴 섬유질로 된 반투명 종이로 찢어지거나 좀 먹은 종이를 복원할 때는 물론 풀을 제거하거나, 유물을 놓기 위해 바닥에 까는 등 보수복원 작업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04. 누렇게 변색되거나 경화된 셀로판테이프 제거

가끔씩 오래된 기록을 꺼냈을 때, 누런 자국만을 남긴 채 접착력을 잃은 셀로판테이프가 팔랑팔랑 날리는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찢어진 기록을 가장 쉽게 붙일 수 있는 것이 셀로판테이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접착력을 잃은 테이프는 누런 자국만을 남기기 십상이다. 이렇게 변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록물이 손상되기 전에 테이프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종이에 딱 붙어 있는 테이프를 기록물을 훼손시키지 않고 제거하는 것이 가능할까?



4



5

4
구겨진 부분을 핀셋으로 펴고 웨이트를 이용하여 눌러서 펴준다.

5
정다영 실무관은 전문 도구나 재료 없이도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복원 방법 및 대체용품을 설명했다.

가능하다. 따뜻한 바람 또는 열이 나오는 테이프 제거 키트만 있으면 된다. 먼저, 부착된 테이프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제거했을 때 기록 내용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제거 키트로 기록물에 부착된 테이프에 열을 가해 제거하면 된다. 열을 가하자 딱 붙어 있던 테이프가 어렵지 않게 떼어졌다. 테이프를 제거한 뒤에 기록의 찢어진 정도를 확인해서 보존용 테이프나 띠지를 이용하여 보강하면 된다.

Tip. 가정에서는 테이프 제거 키트 대신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열이 너무 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너무 감쪽같아요!"

한 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보존복원의 세계에 푹 빠져 있다 보니 처음에 구겨진 기록을 복원하느라 동판으로 눌러 두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다. 정다영 실무관이 상기시켜 주지 않았다면 그냥 돌아갈 번했다. 동판 아래 기록물을 꺼내 보니 꾸깃꾸깃했던 기록물이 다림질을 한 것처럼 펴져 있었다. 가장 신기한 것은 찢어진 기록물을 닥종이 띠지로 보강한 기록물이다.

'분명 내가 한 작업인데, 복원한 부분을 못 찾을 정도로 완벽해!'

참가자들은 재미있으면서도 집중을 요하는 섬세한 작업이었다는 반응이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데도 손수 한 복원작업을 통해 기록물의 손상된 부분이 말끔하게 처리된 것에 신기해하며 만족스러워 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간이나 도구 등의 문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지 못한 것이다. 내부 프로그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시민들, 학생들에게도 생활수선 프로그램을 체험할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생활수선 프로그램은 서울기록원의 대표 문화행사 '2022 서울기록페어'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생활수선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종이 기록을 수선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고 싶다면, 올해 11월 둘째 주에 개최될 예정인 '2022 서울기록페어'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활수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일정은 서울기록원의 홈페이지나 SNS 채널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안대진
아카이브랩 대표

아카비스트를 위한 백팩도 있다고요?

주민들의 커뮤니티 아카이빙 돕는 '백팩 아키비스트 프로젝트'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몇년 전 서울 어느 동네 기록활동가의 발표를 들으며 감탄한 적이 있다. '마을기록은 이웃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박사 받은 연구원들이 아니라 마을주민인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연구나 전시 목적으로 동원될 뿐 성과가 마을로 환원되지 않는 것도 문제였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가슴이 잠시 웅장해지더니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마을 활동가가 콕 찝은 '박사받은 연구원'이 바로 나인 것 같았다. 유튜브 영상인데도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 무렵 나는 동일한 수법으로 몇 개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찍어내던 중이었다. 유튜브 방송을 잠시 멈춰 놓고 모니터 받침대로 쓰던 학위논문 하나를 꺼내 펼쳤다. 예전에 이 논문에서 영국의 한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스스로에 대해 정의 내린 내용을 읽은 기억이 있었다.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커뮤니티가 스스로 만들고 편집하고 소유하는 특징이 있다.'

이 의미를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좀 알겠다. 아카이빙 결과물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이 깊은 뜻을 별스럽지 않게 넘겼다.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컬렉션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핵심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각성한 나는 커뮤니티의 조력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 될까?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의 '백팩 아키비스트 프로젝트'에 힌트가 있다고 한다. 고고고!

작은 키트 하나가 퍼뜨린 아카이빙 열풍–백팩 아키비스트 프로젝트

2018년 4월 5일,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윌슨도서관의 아키비스트인 맥로비McRobbie는 미국 텍사스주 남부 공업도시 샌 안토니오 여행을 앞두고 가방을 꾸리고 있었다. 도서관의 큰 방 회의 테이블에는 여행용품 대신 오디오 레코더, 노트북, 휴대용 스캐너, 그리고 30개의 백팩과 여행용 캐리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맥로비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남부 역사 컬렉션Southern Historical Collection, SHC의 담당자로 '백팩 아키비스트Archivist in the Backpack'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 인근에 있는 커뮤니티 네 곳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으로, 앤드류 W. 멜론 재단에서 3년 동안 87만7,000달러를 지원받아 진행되었다. 도서관은 개인이나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풀뿌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아키비스트는 아카이빙을 위한 기술 노하우를 교육하고 커뮤니티가 스스로를 아카이빙할 수 있도록 물품과 장비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역시 여기서도 커뮤니티 아카이브 활동의 주체는 주민, 즉 커뮤니티 구성원 자신들이다.

백팩 아키비스트 프로젝트–구술 키트

윌슨도서관은 커뮤니티 기록활동가community-based historian들이 인터뷰를 수행하거나 수집한 기록들을 보존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소형 키트로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 키트는 용도에 따라 구술 키트와 보존 키트로 나뉜다. 부피를 고려하여 구술 키트는 백팩에, 스캐너가 포함된 보존 키트는 여행용 캐리어에 담긴다.

백팩 아키비스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맥로비
출처: UNC Library Flickr











구술 키트. 출처: UNC Library 〈Introduction to the Oral History and Archives Kit〉

첫 번째 키트는 구술 인터뷰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다. 보통 구술용 장비라고 하면 오디오 레코더와 삼각대 정도를 떠올리겠지만, 이 키트에는 'DIY 역사가'인 커뮤니티 기록활동가를 위한 필드 노트와 인터뷰 질문 카드, 남부 구술 역사 프로그램 교육 가이드, 참여자에게 보낼 감사 카드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 구술 인터뷰를 해 보면 질문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몇 명이 동행해야 하는지, 녹음은 몇 시간 단위로 끊어야 하는지, 저작권 협의를 하는 데는 어떤 서식이 필요한지 등 미리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

30쪽 분량의 핸드북 형태로 구성된 구술 가이드 안에는 초보자가 읽고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의 요령과 서식들이 수록되어 있다. 책자 앞부분에 소개된 남부 구술 역사 프로젝트SOHP의 사명문이 눈에 띄어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의 미션.

"당신의 삶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유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평범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킨다. 또, 이 프로그램이 남부 지역의 옛 기억을 찾고 기록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구이다. 남부 구술 역사 프로젝트는 4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부터 인권운동가, 미래의 미국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5,300건 이상의 인터뷰를 수행했다. 그 녹음파일과 수집기록들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디지털 구술 역사 컬렉션 중 하나가 되었다.

https://library.unc.edu/wilson/shc/

백팩 아카비스트 프로젝트–보존 키트

두 번째 키트는 인화된 사진이나 편지 또는 일기와 같은 아날로그 기록물들을 보존하거나 디지털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보존처리를 위한 기술 팁과 함께 평판 스캐너, 파일 저장용 USB 드라이브, 중성지 봉투, 훼손되기 쉬운 사진 처리를 위한 면장갑 등의 보존용 도구들이 함께 제공된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앱으로 보정하는 시대에 이런 구식 스캐너가 웬 말이냐고 반문하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다. 맥로비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이 키트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존용품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부의 유서 깊은 흑인정착지역은 후텁지근하고 습한 날씨, 그리고 인종차별적 환경정책 때문에 홍수에 취약했는데 그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서와 랜드마크가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아날로그 장비들은 스마트폰 앱보다 이해하기 쉽고 적정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샌 안토니오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 아카이브 및 박물관 SAAACAM'에 소속된 기록활동가 6명은 오디오 레코더와 스캐너 활용 교육을 받았고 '스캐너톤Scan-A-Thon'이란 구술 행사를 열어 마을주민들을 참여시켰다. 이러한 풀뿌리 모임이나 소규모 조직에 의해 기록되는 역사는 공공 아카이브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샌 안토니오에서 디지털화한 자료 중에는 마틴 루터 킹 행진을 조직한 콜리 목사의 사진과 구술이 확보되어 컬렉션이 풍성해지기도 했다.

키트는 4개의 커뮤니티 아카이브에 제공되었다. 2018년 4월 '샌 안토니오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 아카이브 및 박물관'을 시작으로 '애팔래치아 학생건강연합', '동부 켄터키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주 프로젝트', '유서 깊은 흑인 마을 및 정착연합' 등에도 백팩 키트가 전달되었다. 윌슨도서관은 키트의 효과에 대해 의견을 받아 보다 많은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도록 내용과 구성을 보완할 것이라 한다. 어떤 프로젝트는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아키비스트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존 키트. 출처: UNC Library Flickr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도구가 아키비스트를 만든다!

아카이브 키트는 불씨다. 맥로비는 단순한 초보자용 가이드 하나가 커뮤니티 아카이브 열망에 불을 지르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다고 한다. 그래서 키트는 초보자가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도구들로 구성해야 한다.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핸드북을 통해 내용을 언제든 상기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명확해서 이웃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한다.

아카이브 키트는 빈약한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한다. 다만 처음 만들 때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시민사회나 마을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투여되는 공공과 민간기금은 수개월이라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두 명의 인건비 수준인 경우가 많다. 연구자들은 소규모 예산의 여러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술적 조력자보다는 '하드캐리'하는 역할을 떠안곤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국 앞서 말한 것처럼 연구자가 주도하는 아카이브가 탄생하고 재생산되고 만다. 이제는 '아카이빙을 해봤다', '가능성을 봤다' 하는 수준을 넘어설 시점이 왔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고품질의 마을 아카이브 키트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큰 예산이 한번 투입될 필요가 있다.

키트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 수집한 것을 잘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기록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 많아졌다. 강사의 성향에 따라 역사학 중심이기도 하고, 스토리텔링, 그림 그리기, 구술, 사운드 채집 등 각양각색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한다.

그런데 과연 이 프로그램들의 만족도가 제대로 평가되고 좋은 점들이 벤치마킹되어 발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워낙 다양한 주체들이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구심점을 갖기 어려운 측면도 이해가 된다. 아마도 도서관의 모범사례, 지역 아카이브의 모범사례들이 하나씩 생겨나면서 다음 장이 열리지 않을까.

시민 기록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미션을 갖고 있는 서울기록원이 서울기록화 사업과 함께 '아카이브 키트의 개발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커뮤니티 아카이브 열망에 불씨가 될 첫 번째 키트가 만들어진다. 이후 여러 프로젝트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사용자 의견을 모아 또 새로운 키트를 만든다. 이 키트들이 오픈소스로 퍼지며 키트의 생태계를 만든다. 작은 키트 하나가 아카이브 열망을 트렌드로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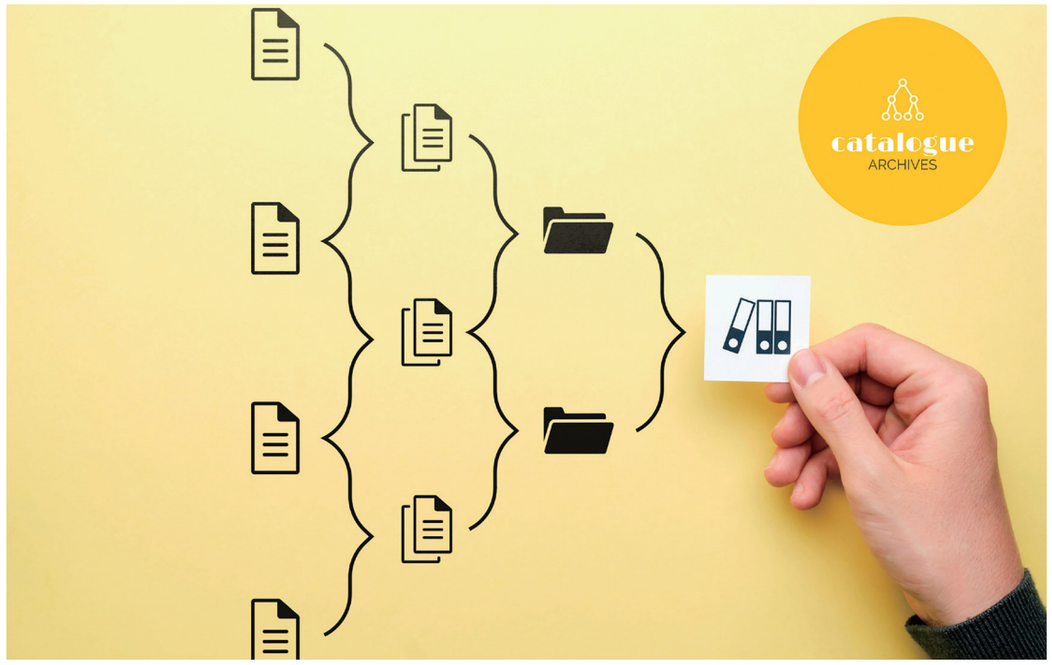
기록도 쇼핑처럼 카탈로그로 골라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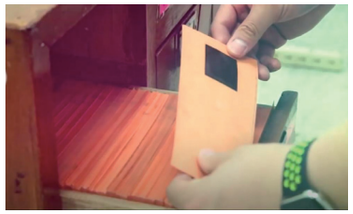


서울기록원은 소장기록들을 카탈로그로 만들어 소개하는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카탈로그라고 하면 보통은 유명 브랜드나 백화점, 홈쇼핑 등에서 발행하는 제품 카탈로그를 떠올릴 것이다. 제품 카탈로그는 제품을 홍보하고 판촉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즉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을 살펴보면 간단하다. 제품의 카테고리 또는 분류, 목록, 상세 규격 정보 등이다. 판매하는 제품들을 카테고리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목록 형태로 정렬하고, 제품별 세부정보를 제공한다.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찾고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쉬운 구조이다.

기업은 제품 카탈로그를 만들고 기록원은 기록 카탈로그를 만든다

기업들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제품 카탈로그를 발행하듯이, 아카이브는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공개하고 기록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록 카탈로그를 제작해왔다. 하지만 제품 카탈로그와 달리 '기록 카탈로그'는 생소하다. 아카이브는 자주 방문하는 공간도 아니고, 기록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대개 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기록과 아카이브의 연결고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카탈로그라는 틀이 낯선 것은 아니다. '제품 카탈로그'와 연결해 '제품'을 '기록'으로 치환해서 비교해 보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다. 기록 카탈로그도 기록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목록의 형태로 배열한 것이고, 기록의 계층별 상세한 기술description정보를 제공한다. 기록을 찾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기록을 쉽게 찾고, 기록에 대한 세부 기술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을 골라 구매하고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기록을 찾아 이용한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제품 카탈로그 역시 디지털 형태로 변모하였다. 단순히 제품 정보가 지면에서 웹 페이지로 옮겨간 것에 그치지 않고, 검색서비스의 형태로 진화하였다. 제품의 카테고리와 목록, 상세규격정보로 구성된 틀은 동일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가능한 다양한 옵션의 검색과 서비스, 콘텐츠들이 추가된 것이 핵심이다. 기본 검색 외에도 상세 검색과 검색 필터를 통해 찾는 제품들의 범위를 쉽게 조정할 수도 있다. 다른 고객이 함께 본 상품, 다른 고객이 구매한 상품 등 연관된 제품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이벤트나 구매 가이드, MD's pick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해 특정 제품군을 소개하고 홍보하기도 한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온라인 쇼핑의 매커니즘과 UI는 알고 보면 아카이브의 기록정보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카이브도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의 분류와 목록, 상세정보를 검색서비스 차원으로 제공하고 있다. 검색 옵션을 적용하는 메커니즘은 온라인 스토어와 다를 바가 없다. 기록유형이나 주제별 검색가이드research guide도 제공한다. 아카이브가 소장한 기록을 소재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 콘텐츠들을 통해서 해당 기록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아키비스트가 소개하는 소장자료 콘텐츠도 있다. 온라인 쇼핑과 굉장히 흡사하다.

기록이 너무 많아 찾기가 어렵다고요?
기록 카탈로그를 살펴보세요

이렇듯 제품을 찾는 것이나 기록을 검색하는 것이나 그 메커니즘은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왜 기록을 찾는 과정은 늘 낯설고 어려울까? 제품은 상세정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카테고리나 제품명, 제조사 같은 기본적인 정보만으로도 어떤 제품인지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제품의 가격, 사이즈, 색상, 소재 등 상세한 규격까지 제공된다면,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보다 명확하게 찾을 수 있고, 구매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기록은 분류와 제목, 생산기관 외에 상세한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록은 읽어야 비로소 내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이 생산된 배경이나 맥락, 기록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들을 입력하고 기술함으로써 검색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제품의 카테고리와 달리, 기록의 분류는 기록을 생산한 부서와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특정 기관의 조직도와 고유한 업무를 일반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또한 이용자들이 기록을 찾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런 접근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아카이브는 조직에 대한 연혁 정보를 구축하고, 직제업무분장 정보를 모아 참고할 수 있게 제공한다. 이들 정보를 기록과 연결하여 보여주기도 하고, 주제별, 기록 유형별로 검색가이드를 만들어 기록을 찾는 법을 안내하기도 한다. 관련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참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록을 보다 수월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제품을 찾기도 힘들고, 결과적으로 구매결정도 내리지 못한다. 같은 관점에서 이용자들이 기록 검색을 어렵게 느끼고, 온라인 스토어에 해당하는 기록 아카이브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아카이브가 기록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세한 내용과 맥락을 기술해주는 것은 아카이브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며 기본적인 의무와 같다. 기록을 찾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기록원이 만드는 소장기록 카탈로깅 서비스

서울기록원은 기록을 단순히 특정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의 접근점을 확장하는 차원으로 정리·기술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기록원에는 경북 청도군 소재 서울특별시문서보존소에 오랫동안 보존되었던 10만여 권의 기록과 서울시 본청 문서고에 보존되어 있던 10만여 권의 기록이 이관되어 있고,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 기록이 이관되면 25만여 권이 넘는 기록이 서고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오래되고' '많은' 기록을 보다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하고, 기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카탈로깅 작업이 불가피하다.
서울기록원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조사연구가이드'를 만들어 특정 기록 유형이나 주제별 기록 소장 현황과 주요 기록들을 소개하고, 검색 및 활용방법을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목록과 빈약한 정보로는 기록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고, 가이드를 만드는 것 또한 어려웠다.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세한 정보들을 기술해 주는 카탈로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2018년에 기록 카탈로그 구축전략을 세우고, 이에 기초하여 2019년부터 카탈로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주택·도시계획' 분야 기록을 정리·기술하여 카탈로그로 만드는 사업을 수행했다. 서울의 다양한 면이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인식하는 부분은 도시공간으로서의 서울이라고 생각했고, 도시계획이야말로 지금까지 변모해온 도시 서울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로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주택, 교통, 건설 분야의 기록을 차례로 정리하였고, 2021년에는 '공원' 분야를 주제로 카탈로깅을 추진했다. 현재 서울기록원은 그 결과들을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의 '온라인 카탈로그'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또 상품 카탈로그북처럼 기록 카탈로그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소문내기 위한 고민들

서울기록원뿐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유물이나 예술작품, 책들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어디든 소장하고 있는 항목들을 이용자에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열망과 노하우를 나누기 위해 서울기록원에서는 지난 8월 18일에 '소장자료 정리와 기술 사례발표회'를 열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영상자료원 등의 국내 유관기관들이 어떻게 소장자료들을 정리·기술하고 카탈로깅하는지, 이용자들이 잘 찾고 잘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각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코로나 시국이라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들을 함께 듣고 싶은 시민들이 서울기록원 컨퍼런스룸을 가득 채웠다. 또, 온라인으로도 16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접속해 열기가 뜨거웠다. 참가자 대부분은 업무 현장에서 자료를 갈무리하는 역할을 맡은 실무자들이었다. 소장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자료들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소개하고 서비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료들을 만난 것 같다는 참가자들이 많았다. 발표자들과도, 참가자들과도 찐한 동지애가 느껴졌다는 후기가 깊이 공감되었다.

더 많은 기록카탈로그를 기약하며

기록을 카탈로깅한다는 것은 '조직, 업무기능, 주제, 공간이나 지역, 인물 정보를 구축하여 기록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그럼으로써 이 기록은 어느 부서에서 생산했고, 그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어떤 공약이나 정책, 사건과 관련이 있고, 어느 지역과 공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카탈로깅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용자는 이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더라도 연결된 맥락을 타고 해당하는 기록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 디지털아카이브에서도 이런 끊임없는 탐색이 가능하도록 검색도구를 개선하고 콘텐츠를 갖출 필요가 있다.
서울기록원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기록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기록을 정리하고 기술하는 일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8월 18일 열린 제1회
소장자료 정리와
기술 사례발표회 모습



박건호
역사 컬렉터·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객원교수

옛 기록물은 역사와 문화를 증언한다

나는 오랫동안 수집을 해왔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모으는 것은 아니다. 수집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먼저 정하고, 대상도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규격, 형태, 가격 등 다양한 요소들도 고려 대상이다. 역사 컬렉터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수집 기준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역사 컬렉터로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수집 기준

첫째, 역사적 의미와 스토리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자료여야 한다. '역사 컬렉터'는 역사를 수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번잡하고 어려운 방식이 아니라 아주 간명한 내용과 형식으로 역사를 증언하는 자료라면 금상첨화다. 역사의 '스냅샷'으로 남아 한 시대를 설명해주는 자료는 그것 자체로 빛난다. 이 자료를 통해 그 시대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들은 일종의 타임머신과 같다.

한말 정미의병 때 의병들에게 납치된 일본어 통역관 조용익을 찾으라는 군수의 훈령, 흥미롭지 않은가? 해방 직후인 1946년 1월 1일 신탁통치 반대를 이유로 익산군청 산림계 주사 전우경이 미군 도지사에게 제출한 사직서, 일제강점기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후 현지인에게 'Korean'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써 준 손기정의 사인지는 어떤가! 1945년 7월 일본군에 징병되어 가면서 아내와 딸에게 남긴 안동 사람 김태봉의 유서는 또 어떠한가. 모두 가슴 떨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래서 자료 자체가 하나의 역사다. 이런 자료들은 교과서가 담지 못한 당대의 절절한 이야기를 그 속에 담고 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들려주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

둘째는 생활 풍속의 변화, 거창하게 말하면 문화와 역사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들도 좋은 수집 대상이다. 하나하나 개별 자료는 잘 담아내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면 흐름이 되고 역사가 된다. 그래서 몇 개의 연속된 자료만 모아도 시대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 역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늘 같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것으로 다가온다.











옛 사진을 통해 해방 이후 여성들의 외출, 모임 복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 박건호





그 자체로 한 시대를 설명해주는 빛나는 역사의 '스냅샷'

예를 들어보자. 내가 수집한 자료 중에는 복식 변화를 담고 있는 사진들이 있다. 오래전 여성들이 특별하게 관광이나 계모임 가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때 여성들의 공식적 외출 복장은 무조건 한복이었다. 그 행사가 연례인 만큼 한복은 최고의 예복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복 사이에 양장이 하나둘 섞여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일정한 과도기를 지나면 한복은 거의 소멸하고 완전히 양장으로 바뀐다. 내 수집 사진들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가 그 과도기다. 이런 사진들을 통해 복식 문화에서 한복이 어떻게 밀려나는지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왜 하필 1960년대부터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 이유까지 규명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한 장의 자료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전체 자료 속에서 봐야 제대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최근에 수집한 자료도 그런 점에서 흥미롭다. 2022년 6월 말 온라인 경매에서 조선 후기 한 집안의 호구단자 9장을 수집하였다. 이 호구단자는 1789년부터 시작한다. 류우원에서 류양권 그리고 류동현, 류원기까지 4대에 걸쳐 이어지는 10장의 호구단자는 신분제가 폐지되는 1894년까지 이어진다.

조선후기 한 집안의 호구단자와 노비 갑덕

그런데 이 자료를 수집한 이유는 이 집안의 호구단자에 꾸준히 등장하는 '갑덕甲德'이라는 이름의 여자 노비 때문이었다. 이 집안의 마지막 호구단자 광서20년(1894) 자료에 갑덕은 호주 류원기(45세) 집에 딸려 살았는데, 출생연도가 '갑진년생'이라고만 되어 있다. 갑덕이 태어난 갑진년은 서기로 환산하면 몇 년도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844년 갑진년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봐야 갑덕의 나이는 51세가 되고, 그 60년 전인 1784년 갑진년생으로 보면 111세가 되어 조선시대 평균 연령을 고려했을 때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비 갑덕이 태어난 갑진년은 놀랍게도 1784년 갑진년이었다. 1894년 당시 나이 111세가 맞다는 이야기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8장의 호구단자 때문이다. 그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858년 호구단자인데, 당시 갑덕은 류원기의 할아버지인 류양권의 집안 노비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 이미 그녀 나이는 75세였다. 갑덕은 그 이후 아들 류동현, 그리고 손자 류원기 3대에 걸쳐 세습되는데 해를 거듭할 때마다 81세, 84세 이런 식으로 나이가 계속 늘고 있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나이 대신 '갑진년생'으로 바뀌긴 했지만 말이다. 1894년 한 장의 문서만 봤을 때 알 수 없는 내용을 전체 문서 속에서 살피니 비로소 노비 갑덕이 태어난 연도가 1844년이 아니라 1784년 갑진년임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옛 문서 탐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조금만 더 문서를 들여다보자.

기록물에서 읽어야 할 문서의 맥락과 역사적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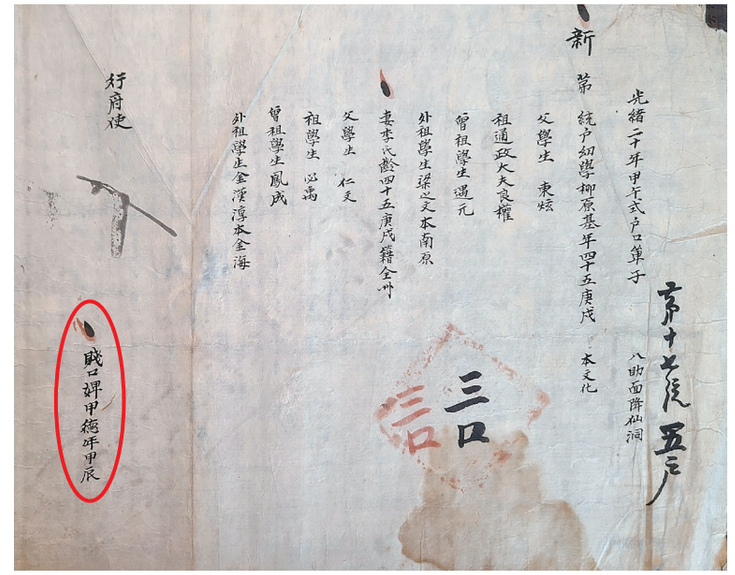
여러 장 문서의 맥락 속에서 읽어낸 갑덕의 나이 111세는 조선시대 평균 수명과 비교해봤을 때 너무 많지 않은가? 그렇다면 갑덕은 1894년에 과연 111세였을까? 옛 기록물을 다루는 이들에게 '문서의 맥락'을 읽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역사적 맥락'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문헌기록이 중요하긴 하지만, 적어놓은 사실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통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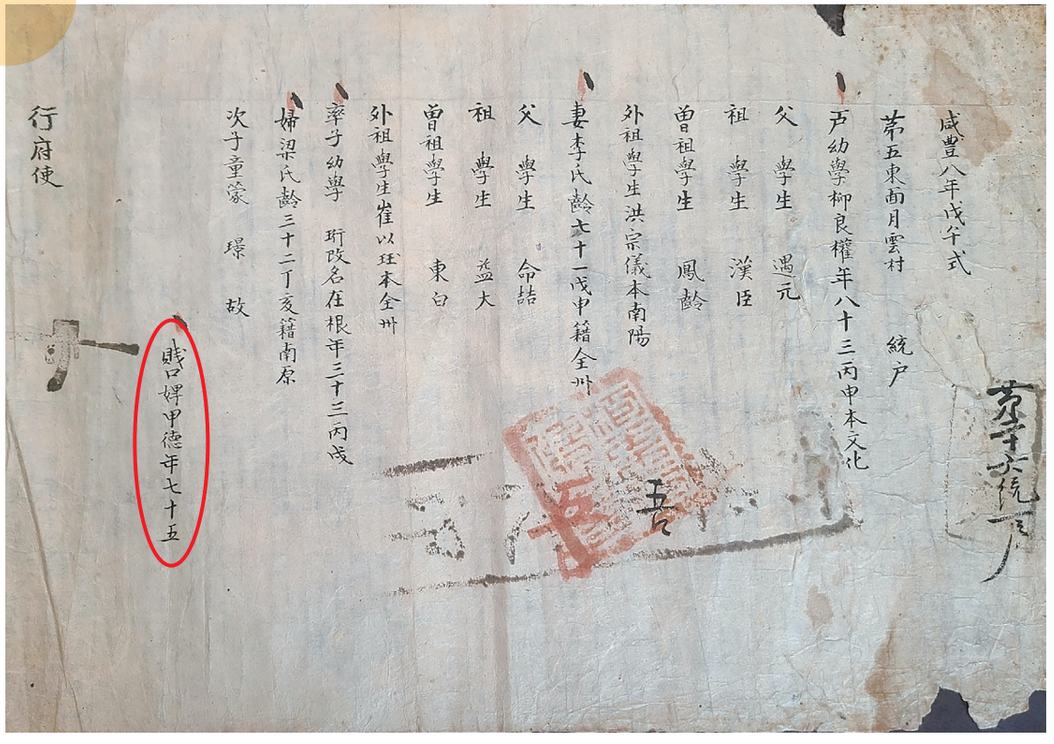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류씨 집안의 호적 자료 말고도, 조선 후기 노비 나이가 100세 넘게 기록된 호적 자료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150세, 200세가 넘는 경우들도 있는데 조선 후기 재령 이씨 집안의 비 계선은 나이가 무려 227세였다. 이렇게 노비의 장수시대가 열렸던 것은 실제 노비들이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도망 노비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도망 노비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양반 주인들이 노비들이 살아 있을 경우의 나이를 계산해 호적에 계속 기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보면 노비 갑덕은 어느 시기 류씨 집안으로부터 도망간 노비였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실제 그녀가 111세까지 살았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훨씬 사실에 가까운 것은 도망 노비로서 갑덕을 이해하는 것이다.

노비 장수시대와 드라마 〈추노〉

이렇게 호구단자 하나에도 그 시대 사회 변화와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교과서에서는 조선 후기 노비가 도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다면, 드라마에서는 이를 〈추노〉라는 형식으로 그리기도 했다. 하지만 옛 기록물은 이런 호구단자 방식으로 과거 도망 노비 이야기를 하나의 사례로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다. 이 기록물 속에 담긴 이야기를 문서의 맥락, 역사의 맥락 속에서 제대로 읽어내는 것은 오롯이 오늘날 우리의 몫이다. 특히 기록물을 다루는 이들은 더더욱 이런 기록물 속에 담긴 역사의 의미를 곰곰히 볼 수 있어야 한다.

위 사진은 류원기의 광서20년(1894) 호구단자인데, 붉은색 테두리 부분을 보면 이 집 소속 노비 갑덕이 갑진년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만으로는 당시 그녀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그로부터 38년 전인 함풍 8년(1858) 류원기의 조부 류양권의 호구단자(아래 사진)를 보면 노비 갑덕의 나이가 75세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갑덕이 태어난 갑진년이 1844년이 아니라 1784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한 걸음 나아가 언제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갑덕이 류씨 집안에서 도망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박건호





이영남
한신대 교수



기록 분야 20년 학술연구와 실천적 경험 집대성 〈기록학의 지평〉

<기록학의 지평>(설문원 저, 조은글터)은 기록학의 여정에서 ‘이정표’로 기록될 책이다. 기록학archival science은 1999년,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제정이 계기가 되어 기록에 관한 일들을 하나의 학문체계로 시작할 수 있었다. 물론 기록은 매우 오랜 전부터 인간의 삶에 있었다. 그렇다면 1999년을 분수령으로 기록학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과장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볼 것이 있다. 어떤 일이 그 사회의 요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분야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계절이 바뀌면 피어나는 꽃들도 달라진다. 전문분야에 속해 기록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여러 개의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와 정책, 표준에 근거해 일을 해야 한다. 또한, 기록을 관리하고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시설인 아카이브를 세우고 운영해야 한다. 때로는 아카이브에서 이용자를 만나 서로 다정다감한 말을 섞으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일도 기록학이 전문분야로서 담당해야 할 일이 되었다.

기록관리 분야에 등장한 묵직한 중심 하나

이정표 앞에 서면 누구라도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는 데에도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기록학의 지평〉을 이정표라 하는 이유이다. 책 한 권이 있어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싶어 하는 기록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곳에 적용하고 싶은 기록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다양성과 차이의 가치는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이 책을 말할 때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한다. 그것은 어느 분야이든 그 분야의 중심을 잡아줄 기본의 필요성이다. 이 책의 등장으로 기록관리 분야에 묵직한 중심이 하나 생겼다. 이 책을 손에 들면 두리번두리번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책을 넘기다 보면 기록학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곳곳에서 전개되는 기록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도 알 수 있다.

〈기록학의 지평〉에는 기록에 관한 한 기본이 되는 것들이 충실하게 들어 있다. 나아가 다양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들도 균형 있게 들어 있다. 첫째, 기록이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이 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이 이 책에는 들어 있다. 둘째, 기록학이라는 학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달해왔는지 이해할 수 있다. 19세기 이후 발달해온 기록학의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역사적 안목이 이 책에는 들어 있다. 셋째, 기록의 동시대 역할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증거, 정보, 기억, 인권일 것 같다. 그런데 이 책은 이런 논의를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성과를 이뤘다. 넷째, 이 책에는 지역, 공동체, 생태, 내러티브, 디지털 등 동시대의 이슈가 면밀히 관찰되어 정리되어 있다. 그것은 저자가 기록학적 방법론을 능숙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는 점, 그래서 동시대의 이슈를 기록의 시선으로 찬찬히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할 것 같다. 지난 20년 동안 꽤 많은 학술논문과 연구용역보고서, 다양한 모임, 현장의 실천적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집단적인 노력이 이 한 권의 책에 체계적으로 집결되어 있는 것이다.

낯선 기록의 세계를 여행하는 기회

기록의 세계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 기록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탐색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에서는 어떻게 적용해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 누군가와 기록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 전문적인 식견으로 제대로 말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기록은 이제 어느 한 분야의 특수지식이 아니라 사회 곳곳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일반지식으로 변하고 있다.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기록학의 지평〉을 만나더라도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의 등장, 책의 가치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기록학의 지평〉의 진정한 가치는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는 데에 있을 것 같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평소 자신이 알던 기록을 떠나, 새로운 기록의 세계를 다녀올 수 있다.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찬찬히 읽는 일은 이국의 어느 낯선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일은 아닐까. 예를 들어, 역사책을 읽는 일은 과거라는 낯선 곳을 여행가나 탐험가가 되어 살펴보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기록의 세계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전문가-시민 팀플레이로 변화 중인 ‘기록시대’, 여러 분야에 가닿길

한 사람이라도 더 〈기록학의 지평〉을 읽으면 좋겠다.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난 축구선수라도 혼자서 90분 동안 공을 소유할 수는 없다. 같은 팀 선수들이 주고받으며 전진할 때 공을 오래 점유할 수 있고 결국 골을 넣을 수 있다. 기록에 관한 일들은 이제 기록전문가와 시민의 ‘팀플레이’가 되었다. 사람들이 기록에 관한 일을 알고 싶거나 모여 논의를 할 때, 기록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기록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그때 이 책을 앞에 두고 논의하면 좋을 것이다. 이 책은 기록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기록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출판되어 사람들에게 읽힌다는 것은, 저자가 공을 몰고 들어와 기록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패스’를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대한 독자가 위대한 작가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이 책이 전문분야에 국한되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의 영역에서 필요한 일을 위해 책을 찾는 사람들의 읽기, 단지 궁금함 때문에 책을 손에 잡은 사람들의 읽기, 이런 읽기가 이 책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해줄 것이다.

아카이브, 양과 패턴의 미학

기록을 '관리'하는 국면에 이르렀다는 것은 낱낱의 기록이 '양껏' 축적되었음을 뜻한다. 기록의 축적물은 늘 어딘가를 가리킨다. 그것은 한 나라의 위상을 담기도 하고, 한 도시에 들고 났던 사연들을 들려주기도 하고, 한 성공이 지나온 무수한 실패를 증언하기도 하며, 한 사람의 면모와 발자국을 훑기도 한다. 모으고 붙들어둔 많은 것들이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고 양이 되고 패턴이 되는 순간을 담은 아카이브를 소개한다.

김밥레코즈 기록의 양과 패턴

김밥레코즈의 음반아카이브 @gimbabrecords

김밥레코즈 인스타그램에는 직접 제작한 음반, 해외직구가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음반, 오래되었거나 알려지지 않은 음반들이 잔뜩 쟁여져 있다. 김밥레코즈 기록이 보여주는 패턴은 그 사각형의 앨범 재킷과 반쯤 고개를 내민 둥근 레코드판이다. 김밥레코즈는 인생의 즐거움을 오로지 음반가게에서 찾곤 했던 김영혁이 운영하는 레코드가게이자 음반제작사, 공연기획사의 이름이다. 그는 라디오에서 들은 음악을 찾아 헤매다가 음악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그 뒤로 음반을 구해서 듣고, 모으고, 기록한다. 그가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에는 음악에 진심인 그의 열정 어린 시간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



새가 깃든 기록의 양과 패턴

그림작가 이우만의 새그림아카이브 @birdphile73

그림작가 이우만은 새를 그린다. 새를 그리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관찰하고 추적하고 이해한다. 새의 지저귐과 움직임, 날갯짓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다 보면 그 이해는 어느새 사랑으로 변질된다. 작디작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도 들여다보게 만든다. 새밖에 모르는 작가의 기록이 보여주는 패턴은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다운 새 그림 그 자체이다. 새 덕분에 조금 더 설레고 풍요로워진 작가의 기록은 온라인 채널뿐 아니라 〈새를 만나는 시간〉 〈뒷산의 새 이야기〉 같은 그림책에 가득 담겨 있다.



빗자루 기록의 양과 패턴

빗자루 장인 밝은공방의 빗자루아카이브 @bargn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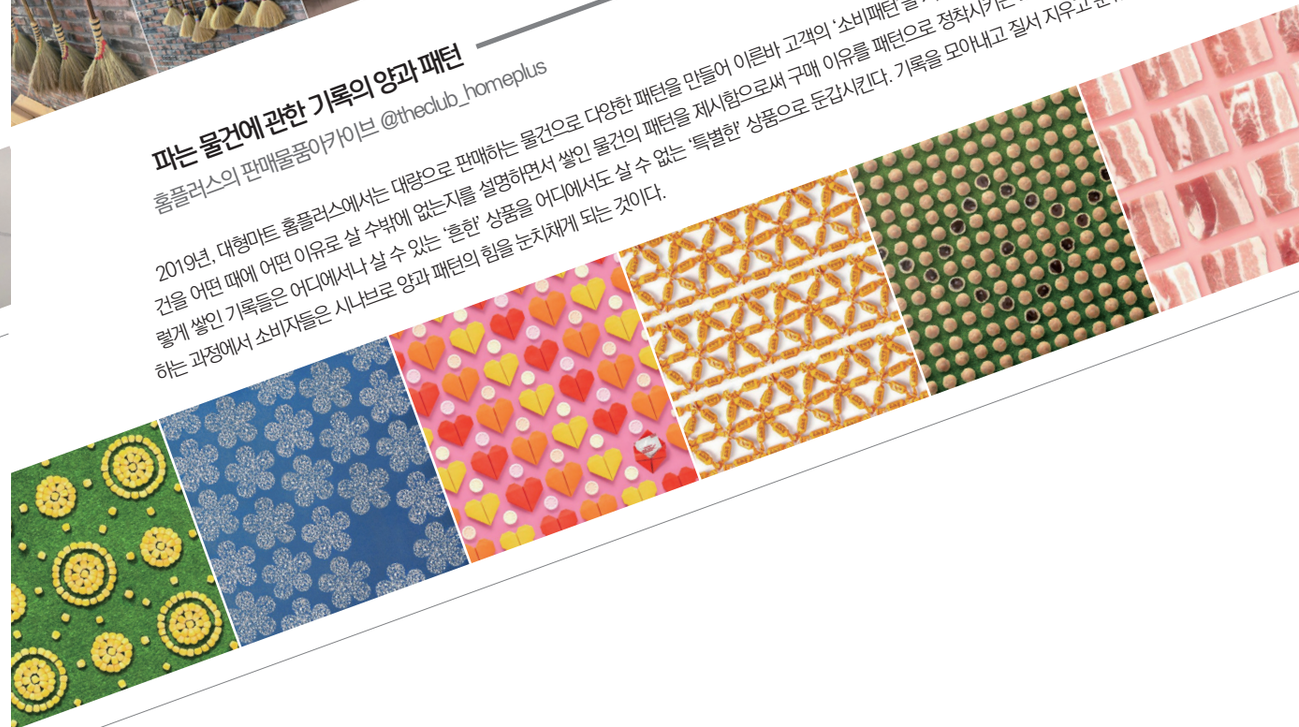
강원도 홍천에서 빗자루를 만드는 '밝은공방'이 쌓은 기록의 패턴은 쫑긋하고 단정한 빗자루 모양이다. 밝은공방의 온라인 채널에는 갈대꽃이 다 자라도록 기다리고, 채취해서 말리고, 한 포기 한 포기 잘 빚어서 빗자루로 만드는 과정과 그 사이사이에 묻은 정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손으로 키를 맞추고 엮고 매어 만드는 때깔 고운 빗자루들의 단아한 자태와,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열리는 제작워크숍에 관한 소식들…. 이 기록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래 곁에 두고 쓰는 반려 빗자루 하나쯤 갖고 싶다는 생각이 왈칵 들 것이다.



파는 물건에 관한 기록의 양과 패턴

홈플러스의 판매물품아카이브 @theclub_homeplus

2019년, 대형마트 홈플러스에서는 대량으로 판매하는 물건으로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 이른바 고객의 '소비패턴'을 시사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 어떤 물건을 어떤 때에 어떤 이유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면서 쌓인 물건의 패턴을 제시함으로써 구매 이유를 패턴으로 정착시키는 효과를 유도한 것이다. 이렇게 쌓인 기록들은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흔한' 상품을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특별한' 상품으로 둔갑시킨다. 기록을 모아내고 질서 지우고 분류하고 제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시나브로 양과 패턴의 힘을 눈치채게 되는 것이다.



Archive News

2022년 하반기 서울기록원은…

2022년 하반기 서울기록원이 시민 여러분과 만남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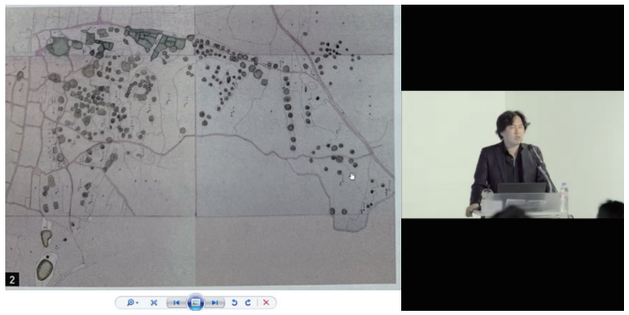
시민기록문화 프로그램

‘오픈소스로 아카이브 만들기’ 심화반 운영

시민 개개인마다 가진 특별한 기록을 아카이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를 통해 시민들과 보다 쉽게 기록문화의 맛과 즐거움을 나눌 수 없을까? 서울기록원이 이를 위해 진행해 온 프로그램이 ‘오픈소스로 아카이브 만들기’이다. 지난 5~6월 오픈소스를 활용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보았던 프로그램이 진행된 데 이어 9월~12월 사이 본격적인 기록관리나 컨설팅을 원하는 개인과 단체 1팀에게 컨설팅하는 심화반으로도 운영된다. 컨설팅은 총 6회에 걸쳐 대상 기관의 요구를 분석한 다음 이에 기반한 기록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2 아카이브 오픈소스를 활용한 기록관리 컨설팅 포스터



지난 2021년에 개최되었던 ‘2021 서울기록페어’에서 김시덕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시민과 기록축제

2022 서울기록페어가 온다

서울기록원을 대표하는 기록문화행사 ‘서울기록페어’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올해로 세 번째인 ‘2022 서울기록페어’는 서울기록원 안팎의 공간에서 펼쳐지며 전 프로그램 오프라인으로 열릴 예정이다. 제3회 서울기록페어는 ‘테마가 있는 페어’로 기획되어 기록전문가, 시민기록활동가, 대시민 등 참여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일자별로 선보일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위주로 열린 지난 페어와 차별화해 강연, 네트워크 세션, 체험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상영 등 신선한 프로그램을 직접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기록활동의 허브로서 서울기록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에 기록문화가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2022년 기획 전시

사진으로 만나는 오래전 서울의 ‘핫플레이스’ 〈사진관 옆 현상소-서울의 사진 문화: 명동과 종로를 중심으로〉

서울기록원은 2020년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진아카이브연구소와 협력 전시를 통해 아카이브 기관은 물론 아카이브 자료에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연결해 10월 7일 서울기록원은 사진아카이브연구소가 위탁한 사진 및 인쇄 자료를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 기반의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아카이브연구소가 ‘서울의 사진 문화’를 주제로 기획한 이번 전시는 사진아카이브연구소 소장자료 중 사진관 및 사진 재료상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해 사진사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물질문화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전시 콘텐츠는 서울기록원에 위탁보존 중인 사진아카이브연구소의 실물 자료로 ▶사진관 관련 아카이브 ▶조종국 및 김용원 아카이브 ▶사진 재료상 및 사진현상소 아카이브 등 ▶순천 동남사 아카이브(대여 전시) 등이다.

1



1
사진관 옆 현상소 포스터

2
경성사진관

3
금광당사진관

4
사진기계 정가표(대택상회)

5
허바허바사장 광고

2



3





4



5

아카이브 서울

vol.4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고경희 서울기록원장
발행처 서울기록원
발행일 2022.09.

archives.seoul.go.kr

제작부서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제작총괄 김은실 기록정책과장
제작담당 정찬홍 주무관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62길 7
전화 02-350-5600

기획편집	디자인	인쇄
P&WG손	김해정	상지사피앤비

©2022. 서울특별시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ISSN 2636-0764 04
행정 821-0048
발간등록번호 51-6113815-000007-10

COVER STORY

2020년 서울기록화 사업에서는 한양도성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창신동 봉제거리를 찾아 1970년대부터 봉제산업을 이끌어온 장인들을 만났다. 이때 촬영한 한양도성을 배경으로 다양한 직업을 표현했다.